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II): 속리산과 우복동

김순배*

Place Naming as an Ideological Sign: Songnisan and Ubokdong

Sun-Bae Kim*

요약 : 지명의 의미와 변천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이 소유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비중립적으로 개명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과 우리나라 지명의 차자 표기 전통을 고려하여, ‘俗離山(속리산)’과 ‘牛腹洞(우복동)’ 지명의 원초 지명으로 추정되는 *송이산’과 *소굿골·*소눈골·*소복골’ 등이 불교 및 풍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거쳐 각각 불교 지명과 풍수 지명으로 음차 및 훈차 표기되어 기호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속리산과 우복동 주변에 분포하는 주요 자연 지명과 인문 지명들은 대체로 순수한 고유 지명 형태를 유지해 오거나, 혹은 고유 지명이 시대별로 유입해 온 다양한 사회 및 문화 집단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변천되기도 하였다. 특히 속리산과 우복동 지명은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의 궤적 속에서 변천되어 왔다. 즉 553년 법주사의 입지 이후 ‘속리산’ 지명은 불교도들에 의해 탈속적이고 불교적인 의미를 지닌 표기로 변용되었고, ‘우복동’ 지명은 조선 후기 풍수 도참사상의 영향과 풍수 지식인들의 형국론에 의해 풍수적으로 변천되었다.

주요어 : 차자 표기, 이데올로기적 기호로서의 지명, 불교 지명으로서의 속리산, 풍수 지명으로서의 우복동

Abstract : The meaning and transformation of place name could be biasedly renamed by certain ideology which social subjects hold.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transforming processes as ideological signs through from pure Korean names of ‘*Songnisan’ and ‘*Sogut-gol · *Sonun-gol · *Sobok-gol’ to ‘俗離山 Songnisan’ and ‘牛腹洞 Ubokdong’ borrowing Chinese characters of similar sounds and meanings. As a result of my research, main physical and human place names located around Sonisan and Ubokdong have not only maintained the original toponymic form as a pure Korean style, but also been transformed to various names through the processes of ideological signification by social groups from diverse dominant cultures. In particular, place names, Songnisan and Ubokdong have been ever changed through the ideological signification. In the final analysis, ‘Songnisan’ had been transformed to a Buddhist place name by Buddhists after Buddhist temple, Beopjusa was established in A.D. 553, and Ubokdong had also been renamed to a Fengshui place name influenced by geomancy and geomance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 borrowing Chinese characters writing system, place name as an ideological sign, Songnisan as a Buddhist place name, Ubokdong as a Fengshui place name

이 논문은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주한 “속리산 권역 산림인문자원 기초연구” 용역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임.

* 홍덕고등학교 교사(Teacher, Cheongju Heungdeok High School), gogeo@daum.net

1. 서론

“道不遠人 人遠道, 山非離俗 俗離山”(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은데 사람이 도를 멀리하였고, 산은 세속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닌데 세속이 산을 떠났다)¹⁾

속리산 세심정(洗心亭) 휴게소에서 복천암(福泉庵)을 오르는 길옆에는 위의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문자 언어의 권력을 과시하며 서있다. 우리가 흔히 ‘속리산’이란 산 이름을 떠올릴 때면 문득 연상되는 것 또한 음성 언어로서의 ‘송니산’이 아닌, ‘俗離山’(속리산)이란 한자 지명과 그 의미로서의 ‘세속을 떠나 있는 산’이곤 하다. 이로 인해 지명 언중들에 의해 ‘속리산’이 회자되는 방식 또한 후자의 탈속적이고 불교적인 의미가 전제되곤 하였다.

그렇다면 이 ‘俗離山’이라는 한자로 표기된 불교 지명이 이 산 이름의 최초의 원(原) 지명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지명의 차자표기(借字表記) 역사를 고려할 때 이 이름 이전에 존재했던 선(先) 지명으로서의 다른 이름이 있었는가?²⁾ 지명을 둘러싼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필자는 우리나라 유교·불교·풍수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제기했던 김순배(2010)의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속리산’과 ‘우복동’

지명의 불교적, 풍수적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는 우선 이데올로기(ideology)라는 개념을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한 시대의 집단적 의식을 구성하는 사고들의 조직이나 일반화된 체계, 혹은 인간 존재의 실재적 조건들을 포착하지 못한 허위의식이자 사고들의 왜곡된 체계로 이해하면서(김순배, 2010, 23),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이데올로기 기호론과 미셸 페쇠(Michel Pécheux)의 유티론적 담론이론의 시선으로 한국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례로 ‘물이 푸른(맑은) 골’ 혹은 ‘무쇠가 많이 나는 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무쇠골’이란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김순배, 2010, 4-5).

그는 ‘무쇠골’이라는 지명이 그곳에 거주하는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대장장이/風水·地官/儒學者·士族)의 사회적 시야에 들어와 그들의 물질적·정신적 토대에 연결되어 사회적 액센트나 이데올로기적 가치 평가를 부여받게 되고, 동시에 특정 주체의 담론 내에 놓인 다른 이데올로기적 단어들(쇠, 낫, 쟁기, 합금, 철광석, 단금질, 노동/氣, 陰陽五行, 感應, 藏風得水, 形局, 明堂/性理學, 心學, 爲己之學, 仁, 敬義, 修己, 主一無適)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담론 과정을 겪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이데올로기적 가치 평가의 부여와 담론 과정을 통과한 ‘무

원 지명	사회계층	이데올로기적 가치평가 및 사회적 액센트 부여 과정 (특정 사회집단의 물질적정신적 토대와 연결)	이데올로기적 지명화
		특정 사회 집단의 담론 과정 (집단 내 다른 단어들과 관계 맺음)	
무쇠골	대장장이 (노동자)	무쇠 낫 쟁기 단금질 합금 철광석 풀무질 노동	무쇠골/水鐵里 (무쇠가 풍부한 마을)
	風水·地官 (중인)	氣 陰陽五行 感應 藏風 得水 定穴 坐向 形局 明堂 風水	무수골/舞袖峙 (仙人舞袖形の 吉地)
	儒學者 (지식인)	三綱 五常 敬 修己 主一無適 性理學 漢學	無愁洞 (근심없는 편안한 마을)

그림 1. ‘무쇠골’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

자료: 김순배(2010, 5)에서 재인용.

쇠골'이란 지명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편입되어 구체적 형태를 지닌 이데올로기적 기호가 되고, 형태적으로는 제각기 특정한 지명 의미를 지닌 서로 다른 표기들(무쇠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무쇠골' / 仙人舞袖形 吉地로서의 '舞袖峙' / 근심 없는 편안한 '無愁洞')로 변형된다는 것이다.

즉 '무쇠골(水鐵里)', '舞袖峙'(무수지), '無愁洞'(무수동)이란 이름들은 지명이 자리한 장소에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주체가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지명들이다. 이렇게 생산된 특정한 지명 의미는 해당 지명 영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주체와 집단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재현해 줌과 동시에 음성과 문자 형태의 지명 경관을 통해 그들의 거주 경계와 영역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그림 1).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은 553년(신라 진흥왕 14) 건립된 불교 사찰 법주사(法住寺)의 입지로 인한 '속리산' 지명의 불교적 변용, 그리고 조선 후기 유행한 풍수 도참적 십승지(十勝地)로 거론된 속리산 중항 근처, '牛腹洞'(우복동) 지명의 풍수적 변천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기초로 하고 훈차 표기(訓借表記)보다 앞서서 음차(音借) 표기되었던 우리나라 지명의 차차 표기 역사를 고려하여(김순배, 2012; 2013, 11-12), 본 연구는 '속리산'과 '우복동' 지명의 원초 지명으로 추정되는 고유 지명 *송이산[지명 앞의 별표(*)는 추정 지명임을 뜻함]과 *소곳골·*소눈골·*소복골' 등이 불교 및 풍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거쳐 각각 불교 지명과 풍수 지명으로 음차 및 훈(음)차 표기되어 기호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속리산과 우복동 주변의 지명들을 대상으로 자연 지명(산 지명, 고개 지명, 하천 지명 등)과 인문 지명(촌락 지명, 명승 지명 등)으로 구분하여 시대별 고문헌 및 고지도 등에 기재된 지명 표기를 정리하여 지명 변천 도표를 작성하였다.³⁾ 수집된 지명 자료들을 기초로 자연 지명과 인문 지명의 분포와 의미,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속리산'과 '우복동'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속리산'과 '우복동'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이 경유하는 속리산 능선과 영강 상류 지역으로서, 현재의 행정구역 상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만수리 등, 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용유리-장암리 등, 그리고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화산리 등이 해당된다. 특히 사례 연구 대상으로 제시된 주요 지명들은 대체로 '쌍룡' 마을 상류에 위치한 영강 유역의 분수계(속리산 천왕봉~피앗재~형제봉~갈령~도장산~쌍룡 및 용추~비치재~시루봉~청화산~늘재~밤티재~문장대~천왕봉)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지명의 의미와 변천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속리산 주변의 관련 지명들을 포함시켰다. 시간적 범위는 해당 연구 지명이 수록된 (고)문헌 및 (고)지도의 편찬 연대에 맞춰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로 제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지도 분석의 실내 문헌 조사를 주로 실시하였고, 면담과 관찰 등을 포함하는 현지 야외 조사를 병행하였다.

2. 자연 지명의 분포와 불교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1) 자연 지명의 분포와 변천

본 연구 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자연 지명은 후부 지명소의 지리적 유형에 따라 산 지명(-산, -봉 등) 6곳, 고개 지명(-터, -치, -재, -령, -현 등) 5곳, 하천 지명(-천, -수, -추) 3곳, 그리고 바위 지명(-암, -석, -병 등) 4곳을 포함하여 총 20 곳이 분포한다.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속리산과 천왕봉을 제외한 18곳의 자연 지명의 분포와 지명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먼저 산 지명으로는 구봉산(구명산), 문장대(봉), 형제봉, 청화산(화산, 태화산), 도장산, 그리고 중항(시루봉) 등 6곳이 분포하고 있다. 구봉산(九峯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속리산의 별명으로 불리어 오다가 속리산으로부터 지명 영역이 분화되어 속

리산 남쪽 산지, 즉 현재의 충북 보은군 탄부면~마로면, 그리고 경북 상주시 화남면~화서면 일대의 산지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변천되었다. 이후 19세기 고문헌 및 고지도로부터 구병산(九屏山)이란 지명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때 전부 지명소 '구병-'은 이전의 '구봉-' 지명을 또 다른 한자로 음차 표기 혹은 취음(取音)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병산(877m)은 충북 속리산면 '구병리'라는 촌락 지명으로 전부 지명소가 승계되었고, 마로면 적암리와 구병리 사이의 능선을 가리키는 산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북쪽의 능선은 '봉황산(741m)'이란 새로운 지명으로 불리고 있다.

문장대(文藏臺)의 경우 한때 문장대봉, 운장대, 금장대라는 이명칭이 존재하다가 현재는 문장대(文藏臺)로 통칭되고 있다. 전부 지명소인 '문장-'의 경우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한자들(雲, 壯, 莊, 藏)로 음차 표기되었다. 형제봉(兄弟峰)은 19세기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20세기 들어 기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명명 시기가 짧은 지명으로 보인다. 청화산(靑華山)은 『擇里志』(1751)의 저자 이중환(1690~1756)의 호인 '청화산인(靑華山人)'이 유래한 이름이다. 청화산은 17세기까지 華山(화산)으로 표기돼 오다가 18세기 기록부터 지금의 이름인 청화산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靑花山(청화산), 太華山(태화산)이란 이표기 내지는 또 다른 별칭으로도 불리었고, 후대에는 청화동, 화산리, 청화점, 청화정, 청화로 등과 같은 다양한 지명의 전부 지명소로 분화되었다(표 1).

도장산(道藏山)은 18세기 기록으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초 문헌에 한때 '藏-'이 '庄-'으로 이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표기의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 후기 속리산이 십승지의 한 곳으로 지목된 이후 많은 주목을 받아온 증항(甌項)은 현재 정확하게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지명 위치와 영역을 알 수 없는 지명이다. *시루목'이라는 고유 지명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항은 조선 후기 풍수 도참사상이 확산되면서 심한 표기 변화와 지명 형태소 변형을 경험하였다. 즉 17세기 이래로 증항은 '蒸項(증항)'으로 이표기 되거나, '四甌項(사증항)', '東甌(동증)', '西甌(서증)', '南甌(남증)', '北甌

(북증)', 그리고 '四甌(사증)', '八項(팔항)' 등으로 전·후부 지명소가 변형되어 기록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시루목'을 포함하여 위에서 제시한 모든 지명들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시루봉'이란 지명이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그리고 연구 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에 분포하고 있다.

연구 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고개 지명으로는 늘치(늘재), 밤티(울현), 피앗재(피화령), 갈령, 비치재 등 5곳이 있다. 남한강과 낙동강의 분수계이자 백두대간이 경유하는 늘치는 17세기에 '於乙峴(어을현)', '罌峙(얼치)'와 같이 각각 '늘'의 받쳐적기(於乙)와 음차 표기(罌)로 기록되었다(표 1의 비고란). 이후 19세기에는 於嶺(어령), 20세기에 於峙(어치), 於項(어항, 늘안목), 楡峙(유치)(楡: 늘의 訓音借 표기) 등으로 표기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의 자연 마을인 웃늘티와 아랫늘치로 촌락이 분동되어 존속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용유동(화북면 용유리)에서 용화동(화북면 운흥리)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밤티(약 510m)는 18세기 이래 栗峙(울치), 栗峴(울현)으로 혼차 표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피앗재는 낙동강과 금강 유역의 분수계이자 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를 잇는 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피밭재>*피밭재>피앗재>피화재>避禍嶺'의 지명 변천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명은 19세기에 '避禍峴(피화현)'이란 한자 지명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 『정감록』의 십승지(十勝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기근, 전란, 전염병이 없는 '삼재불입지(三災不入之地)'의 이상향을 갈구하는 믿음이 식물로서의 '피[稷]'를 생산하는 '피밭재~피앗재'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避禍嶺(피화령)'으로 표기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지역의 최남단 분수계를 이루는 갈령(葛嶺) 고개는 18세기 고문헌과 고지도로부터 적극적으로 표기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갈령재', '갈령들'과 같은 파생 지명이 명명되기도 하였다.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광정에서 화산리 청화로 넘어가는 고개인 비치재(약 610m)는 19세기로부터 전부 지명소 '비치'를 '飛

표 1. 속리산 자연 지명의 변천

지명	新增 (1530)	東國 (1656-73)	輿地/戶口 (1757-65/1789)	東興/大圖/大志 (1800년대 증업)	朝鮮/舊韓/新舊 (1911?/1912/1917)	韓國 (1970/1978)	보은/상주/Daum (1994/2010/2017)	비고
구방산 구영산	九峯山(報恩縣·尙州牧山川條) 九峯(『世宗』尙州牧名山川條在化寧西北)	九峯山(報恩縣山川條與俗離山相連) 九峯山(尙州牧山川條)	九峯山(報恩山川條俗離山俗離山九峯突起亦名九峯山) 九峯山(報恩·尙州山川條) 九峯山(《海東》報恩縣)	九峯山(《青邱》) 九峯山(《大圖》·報恩山水條) 九屏山(《1872》報恩郡地圖)	구영산(九屏山)『朝鮮』보은군 속리면 山谷名 九屏里(『舊韓』·『新舊』報恩郡 俗離面)	九屏山(보은군 산천, 보은군 내속리면-상주군 화북면)	九屏山(877m), 九屏里(보은군 마로면-속리산면)	(峯·峰)屏 속리산으로부터 지명 영역 분화
문장대	文藏臺(報恩縣山川條俗離山)	文藏臺(報恩縣山川條俗離山)	文藏臺(報恩山川條俗離山) 文壯臺(《海東》報恩縣) 文壯臺(《朝圖》報恩) 金壯臺(《朝圖》淸州)	文藏臺(『大志』報恩山水條) 文壯台(『大圖』報恩) 文藏台(《青邱》) 雲藏台(《金得研》) 雲壯臺(《1872》報恩郡地圖)	문장대(文藏臺)『朝鮮』보은군 속리면 산국명 文壯臺(『牛腹e.』) 北面山名 大興里)	문장대골(상주군 화북면 장암리) 文莊臺(『牛腹e.』)	文藏臺, 문장대길, 문장로(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산33)(Daum)	(文·雲)文 (藏·壯·莊)藏 (臺·台·臺峰)臺
형제봉					(兄弟峰)『朝鮮』尙州郡 化北面山名 東觀音里)	兄弟峯(충북 산천, 보은군 내속리면-상주군 화북면/ 화북면 평온리-동원리) 형제봉(『牛腹e.』)	兄弟峰(829m)(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민수리-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소리-화남면 등관리)(Daum)	(峰·峯)峰
*華山(聞慶縣山川條)	華山(聞慶縣山川條) 華基里? (『戶口』尙州 化北面) 華山(《備邊》尙州) 華山(《朝圖》聞慶) 靑華山(《備邊》聞慶) 靑華山(《海東》聞慶縣) 靑華山(《地乘》聞慶縣) 靑華山(『釋里』卜居聞慶) 靑華山(南漢朝) 華山(《東城》慶尙道) 華嶽 華山(宋明欽) 太華山(李顯益) 內西里(『戶口』聞慶 加西面) 龍巖里(『戶口』聞慶 加西面)	華山(聞慶山川條) 華基里? (『戶口』尙州 化北面) 華山(《備邊》尙州) 靑華山(《朝圖》聞慶) 靑華山(《海東》聞慶縣) 靑華山(《地乘》聞慶縣) 靑華山(『釋里』卜居聞慶) 靑華山(南漢朝) 華山(《東城》慶尙道) 華嶽 華山(宋明欽) 太華山(李顯益) 內西里(『戶口』聞慶 加西面) 龍巖里(『戶口』聞慶 加西面)	華山,靑華山(『大志』聞慶山水條) 靑華山(《海東》龍巖串 동쪽),華山(《青邱》) 靑華山(《輿圖》慶尙道) 靑華山(《金得研》) 自長淵洞距宋機川亭至靑華洞十里(『牛腹e.』)	(靑華山)『朝鮮』尙州郡 化北面山名 花山里 (靑華山),靑華谷(『朝鮮』聞慶郡 加西面 光亭里) (靑華店)『朝鮮』聞慶郡 加西面 酒幕名 靑華洞(『舊韓』聞慶郡 加西面) 花山里(『朝鮮』尙州郡 化北面山名) 花山里(『舊韓』尙州郡 化北面) **華山里(『新舊』聞慶郡 龍巖面)	靑華山(984m)(충북 괴산군 정진면 신승리)(Daum) 청화로(상주시 화북면 용유리~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靑華亭(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청화산방 부근) 청화,華山里(문경시 농암면 화사리) 靑華(金子相) 구화산, 신화산(의북면 용유리) (《농지》) 화산(농암면 내서리)(《농지》) 화산골, 화골(의북면 장암리) (《농지》)	靑華山·華嶽·靑華山·靑花山·大華山)靑華山 *在加恩縣西距縣六十七里 **下西面 靑華洞,內加西面,內中里 통합하여 신설(1914년)	靑華山(984m)(충북 괴산군 정진면 신승리)(Daum) 청화로(상주시 화북면 용유리~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靑華亭(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청화산방 부근) 청화,華山里(문경시 농암면 화사리) 靑華(金子相) 구화산, 신화산(의북면 용유리) (《농지》) 화산(농암면 내서리)(《농지》) 화산골, 화골(의북면 장암리) (《농지》)	(華山·花山·華嶽·靑華山·靑花山·大華山)靑華山 *在加恩縣西距縣六十七里 **下西面 靑華洞,內加西面,內中里 통합하여 신설(1914년)
도장산	道藏山(『釋里』卜居) 道藏山(宋明欽·福泉記略) 道藏山(李青翊)	道藏山(『釋里』卜居) 道藏山(宋明欽·福泉記略) 道藏山(李青翊)	道藏山(《金得研》)	道藏山(『朝鮮』尙州郡 化北面山名 竜渡洞)	道藏山(『牛腹e.』)	道藏山(828m)(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Daum) 道藏(金子相)		(藏)庄)藏

지명	新增 (1530)	東國 (1656-73)	輿地/戶口 (1757-65/1789)	東輿/大圖/大誌 (1800년대 중엽)	朝鮮/舊韓/新舊 (1911?/1912/1917)	韓國 (1970/1978)	보은/상주/Daum (1994/2010/2017)	비고
증항 시루봉 시루봉		甌項(『鄭鑑』 西溪) 四甌項(『鄭 鑑』鑑說) 蒸項(『鄭鑑』 南略庵)	興地/戶口 (1757-65/1789)	*甌項(『大圖』報恩) 東甌,西甌,南甌,北甌 (『1872』報恩郡地圖) 俗離之北甌項相距十五 里(李圭景)	시루봉(505m), 증봉묘 은근산전, 마로면 갈 전리-세종리-빈논 리) 시루봉(500m)(문경 군산전, 문경읍 당포 리-평전리) 四甌,八項,東甌,峯하 甌泉精舍(『牛腹e.』)	구방산 시루봉(417m)(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산28)(Daum) 청화산 시루봉(876m)(문경시 동이면 내서리 산2)(Daum) 東甌,西甌,南甌,北甌(四甌項) (『報恩』(1994년) 속표지; 『1872』報恩郡地圖)	(甌項·蒸項)四甌項 >四甌·八項)시루 봉) (甌項: 시루목의 훈차 표기) *甌基 정동쪽 8리 부 근 尙州와의 경계 지점	
늘지 늘재 늘티			*於乙峴嶺陁(『備邊』尙州) 發峙(『東城』慶尙道)	웃늘티(上發里, 아리늘티(下 發里(『朝鮮』尙州郡 化北 面 里 名) 늘테골(發峙谷)(『朝鮮』尙州 郡 化北面 谷 名 下發里) 늘적골(於峴谷)?(『朝鮮』聞慶 郡 加西面 山谷 名 栗下里) 上於里, 下於里(『舊韓』尙州 郡 化北面)	늘티, 어티, 於峙(상주 군 화북면 용유리) 늘재, 늘티, 유티, 嶺峙 (상주군 화북면 장암 리) 웃늘티, 웃늘리, 상늘티, 상늘리, 아랫늘티, 하 늘티, 하늘리(화북면 장암리) 늘티(『牛腹e.』) 늘안목, 늘항목, 於項 (화북면 용유리)	윗늘치, 아랫늘치(상주시 화북 면 장암리) 늘재(약370m)(경북 상주시 화 북면 장암리-임석리 846) (Daum)	(發)於 (於乙: 늘의 반칙적기 법) (發: 늘의 음차) *(於: 늘의 훈음 차) 늘 어(『新增類 書』(1567), 『石峰千 字文』(1583))] 느나미(於南里(대진 시어남동) (發: 늘의 훈음차)	
밤티 밤타재 울현			栗峙(『釋里』青川南) 栗峴嶺陁, 栗山(『備邊』尙州) 栗峴里?(『戶口』尙州 化北面)	밤티(栗峴里)(『朝鮮』尙州郡 化北面 村 名) 밤테골(栗峴谷)(『朝鮮』尙州 郡 化北面 谷 名 下發里)	밤티, 울티, 栗峙(상주 군 화북면 장암리) 밤티(『牛腹e.』)	밤타재(약510m)(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아랫늘치-중 별리 밤티)(Daum) 밤티(티?)(화북면 증벌리)(《농 지》)	(峙·嶺)峙 *원재 경북 상주시 화 서면 울림리(울현+ 장림)(Daum)	
피앗재 피화령			避禍峴(金得研)	(避禍嶺)(『朝鮮』尙州郡 化北 面 嶺 名 上五里)	피앗재(모은근 내속리 면 모막리 민수동 큰 막-상주군 화북면 상오리 신삼이) 避禍재(『牛腹e.』)	피앗재(약539m)(충북 모은근 속리산면 민수리-경북 상주 시 화북면 상오리)(Daum) 피앗재, 피앗재골(속리산면 만 수리)(《농지》) 큰피앗재골, 작은피앗재골, 피앗 재들(화북면 상오리)(《농지》)	(피람재)피람재)피앗 재)피화계)避禍嶺) (峴)嶺) (避禍: 피앗의 음차)	

지명	신증 (1530)	東國 (1656-73)	興地/戶口 (1757-65/1789)	東興/大圖/大志 (1800년대 증임)	朝鮮/舊韓/新舊 (1911?/1912/1917)	韓國 (1970/1978)	보은/상주/Daum (1994/2010/2017)	비고
갈령			*葛嶺(閔慶)山川條 **葛洞里? (戶口)尙州化北面 葛峯(朝圖)尙州 丕可峴(備邊)尙州 葛峴(備邊)閔慶 葛峴(東坡)慶尙道	葛嶺(大志)尙州牧山 水條 嶺路 葛峯(大圖)尙州 葛嶺(興圖)慶尙道 葛嶺(金得研)	(葛嶺)「朝鮮」尙州郡 化北面 영명 東飛嶺里 (葛洞?)「朝鮮」尙州郡 化北面 洞名 葛洞? 「舊韓」尙州郡 化北面 비지리(東飛嶺里)「朝鮮」尙州郡 化北面 里名 (東飛嶺酒幕)「朝鮮」尙州郡 化北面 酒幕名 東飛嶺里「舊韓」尙州郡 化北面	비조재, 비지리, 飛嶺, 飛嶺峙, 鳥嶺, 갈령재, 갈령, 티? (상주군 화북면 상오리) 葛嶺재(牛腹e.) ***비티재(화북면 상오리)	葛嶺(약460m)(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화남면 동관리) (Daum) 갈령들(화북면 상오리)《(농지)》	*在加恩縣南十五里 自俗嶺山來 **원 문경시 농암면 갈동리 ***용호(장각푸포 아래 시)에 문경군 내서리로 넘어가는 고개
비지재 비지령			飛雉嶺(宋秉瑞) 飛峴(1872)閔慶地圖 光大丁(1872)閔慶地圖 丙上, 丙中, 丙下(1872)閔慶地圖	(飛雉嶺)「朝鮮」閔慶郡 加西面 嶺峙峴名 靑華洞 (飛峙峴)「朝鮮」閔慶郡 加西面 嶺峙峴名 光亭里 광사정(光亭里)「朝鮮」閔慶郡 加西面 洞里村名 (光亭店)「朝鮮」閔慶郡 加西面 酒幕名 光亭里「舊韓」閔慶郡 加西面 *丙西里「新舊」閔慶郡 龍岩面	비지재, 비지리, 飛雉峙, 상비지, 中飛雉(문경군 농암면 화산리) 光亭, 光亭里, 광대장(농암면 내서리) 비티(상주군 화북면 용유리) 光亭, 광정리(화북면 용유리)	비지재(약10m)(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광정-화산리 정화(Daum) 상비지, 중비지(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광정(농암면 내서리)《(농지)》	(飛雉)飛光 (飛雉)비지의 음차 (光: 비지의 훈차 혹은 혼음자) **加西面 光亭里 丙上里, 樓洞, 西嶺里 통합하여 신설 (1914년)	
병진		屏川(金昌協), 華陽諸勝 屏川(金昌協), 華陽諸勝 記	瓶川(釋里)卜居 瓶泉(李顯益) 瓶泉精舍(閔遇來) 瓶泉(12회 증원)(宋明欽) *瓶泉舊名屏川, 瓶泉精舍, 定爲九曲瓶泉即第六曲也. 南淵, 北淵(宋明欽, 瓶泉記略) 瓶川, 宋氏精舍(李肯翊)	**瓶川(大志)閔慶山水條 瓶川(東興) 白長淵洞距宋機川亭至靑華洞十里(牛腹c.) 瓶泉, 機川別業(宋秉瑞)	瓶泉, 坪川(상주군 화북면 용유리) ***機泉亭(화북면 용유리 병진) 瓶泉, 東嶽峯하, 瓶泉精舍, 瓶泉漁歌(牛腹e.)	병진길(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Daum) 병진(우북동)녹색농촌체험마을(용유리 병진 산계당 안내식) 瓶泉精舍, 瓶泉亭, 瓶泉(양용계곡)(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정화로 223 부근) 瓶泉之龍遊洞天, 瓶泉精舍, 瓶泉六舍, 靈芝山之南淵精舍(金子相)	(屏川)瓶泉·瓶川)坪川) *有如瓶口 故先君更名曰瓶泉(屏川)瓶泉(송명흥의 부친 宋堯佐1678-1723) **在加恩縣西距華陽洞四十里... 北接仙遊洞 ***조선 영조 때 학자 卮(의)친 宋明欽이 이곳의 아름다운 산수를 탐내어 정자를 짓고 살았음	

지명	新增 (1530)	東國 (1656-73)	輿地/戶口 (1757-65/1789)	東興/大圖/大志 (1800년대 증업)	朝鮮/舊韓/新舊 (1911?/1912/1917)	韓國 (1970/1978)	보은/상주/Daum (1994/2010/2017)	비고
영수			興水(尙州 山川條) 加恩川(開慶 山川條)	潁川(『大志』尙州牧山水條) 加恩川(『大志』開慶山水條)		潁水(閔禹龜, 四友亭記)	龍遊川, 龍岩川 潁江(경북 상주시 화북면-문경시 농암면-가은읍-문경시 내-상주시 함창읍-사별면 퇴각리 낙동강 유입)	(潁) 潁, 潁 許由의 巢父의 潁 箕山潁水 고사에서 유래 *在州北四十五里發源于開慶龍淵入于三灘 *潁은 潁의 誤記 **在加恩縣其源有二一出俗離山一出曠陽山合而東流與所耶川合
용추		龍湫(金昌協, 華陽諸勝記)	深湫(開慶 山川條 龍遊洞) 龍湫(『釋里』卜居) 龍湫(《備邊》開慶) 深湫, 雙龍(李萬敷) 上下二湫(李翼) 龍湫(宋明欽, 瓶泉記略) 龍湫(李青翊)	*龍湫(『大志』開慶山水條 瓶川)		深源龍湫(문경군 농암면 내서리)	용추교(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심원사 임구 다리)(Daum)	(龍湫·深湫·深源龍湫) 龍湫 *下有上下龍湫二處
동천암 연좌암 대은봉 화란석			宴坐巖, 南潤精舍, 刻楊蓬萊洞天二大字(宋明欽, 瓶泉記略)	路傍臥石刻洞天(天?)二字(宋秉瑞) 水中一巖刻回瀾二字(宋秉瑞)		洞天岩에 一筆揮之 楊士彦의 명필로 서, 廻瀾石, 인좌암(牛腹e)	洞天巖(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청화로 옆)(Daum) 宴坐巖(용유리 명진 명진길21 동편) 大隱扉(용유리 명진길21 동북편) 迴瀾石(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명진정사 앞 영강 가운데) 宴坐巖, 大隱扉, 洞天巖, 廻瀾石之(金子相)	(回瀾)廻瀾

주1: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주2: 항목 내의 물음표(?)는 추정 자료임.

雉嶺(비지령)’으로 음차 표기하거나, ‘光大丁(광대정)이나 ‘光亭(광정)’으로 훈차 혹은 훈음차 표기하였다. 현재 비지재의 서쪽 사면에 있는 농암면 내서리에는 자연 마을 ‘광정’이 있고, 반대쪽 동쪽 사면의 농암면 화산리에는 상비지와 중비지라는 자연 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비지재라는 동일한 지명에서 유래한 이표기의 자연 마을들이 고개를 사이로 달리 명명되어 통용되고 있어 흥미롭다(김순배, 2015, 16-22).

연구 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하천 지명 3곳(병천, 영수, 용추)과 해당 하천 변에 위치한 바위 지명 4곳(동천암, 회란석, 대은병)은 17세기 이래 유교적 이상향으로서의 동천(洞天)을 찾아 이곳에 우거(寓居)하거나 명승을 찾아 유람 온 사족(士族) 내지는 유교적 지식인들에 의해 명명되거나 개명된 지명들이다. 현재의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병천 마을과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쌍룡 마을 사이를 흐르는 영강(혹은 용암천) 유역에는 한때 이들에 의해 경영된 쌍룡구곡(雙龍九曲)과 장수처(藏修處)의 흔적이 유교 지명 형태로 다수 남아 있다.⁴⁾

병천은 17세기에 屏川(병천)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병천정사(瓶泉精舍)의 주인이었던 宋明欽(송명흠, 1705-1768)의 부친, 宋堯佐(송요좌, 1678-1723)에 의해 하천 지형이 병의 입구와 같다하여 瓶泉(병천)으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표 1 비교란). 이후 18세기에는 瓶川(병천)이, 19세기에는 瓶泉川(병천천), 그리고 20세기에는 전부 지명소 ‘瓶-’이 ‘坪-’으로 음차 표기되기도 하였다. 이후 병천이란 하천 지명에서 유래한 촌락 지명 瓶泉(병천)(화북면 용유리)과 마을 앞을 흐르는 병천천이란 하천 지명이 순차적으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영수(潁水)는 중국의 요임금 시절 허유(許由)와 소부(巢父)의 ‘기산 영수(箕山潁水)’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 상류의 加恩川(가은천)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 지역을 경유하는 유역에서는 영강(潁江), 혹은 용암천(龍岩川)과 용유천(龍遊川)으로도 불린다.

용추(龍湫)는 17세기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深湫(심추), 20세기에는 인근 심원사의 사찰 이름을 전부 지명소로 사용하여 深源龍湫(심원용

추)로도 기록되었다. 한편 병천 일대에 분포했던 바위 지명인 洞天巖(동천암), 宴坐巖(연좌암), 大隱屏(대은병), 廻瀾石(회란석) 등은 양사언(楊士彦, 1517~1584)에 의해 각자(刻字)된 것으로 전하는 동천암을 제외하고, 17세기 이래 이곳에 전장(田庄)을 소유했던 서인 노른계 은진 송씨(恩津 宋氏) 일가들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천 마을과 병천정사 주변에 해당 지명이 새겨진 바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2) ‘속리산’ 지명의 불교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송이놀이”

속리산(俗離山)은 현재의 남한 측 백두대간이 경유하는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한에 있는 모든 산줄기가 속리산으로부터 분기해 갔으며, 특히 남한강(달천), 금강, 낙동강의 분수계를 이루는 ‘삼파수(三派水)’의 갈림길로 인식되어 왔다(표 2 비교란). 속리산의 지리적, 지정학적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했던 신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속리산을 사전(祀典) 제도 하의 중사(中祀)로 제사를 지냈다.

지명 측면에서 속리산이란 이름은 9세기인 822년에 俗離山(속리산)과 俗離岳(속리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표기자의 큰 변화 없이 존속하고 있다.⁵⁾ 지금까지 알려진 이칭 혹은 별칭으로는 광명산(光明山), 지명산(智明山), 미지산(彌智山), 구봉산(九峯山), 형제산(兄弟山), 소금강산(小金剛山), 자하산(紫霞山) 등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 후대로 오면서 속리산의 전부 지명소를 활용한 파생 지명들, 즉 俗離寺(속리사), 俗離山祠(속리산사), 俗離岳壇(속리악단), 俗離面(속리면), 俗離山面(속리산면), 속릿들, 속릿비리 등이 속리산 주변에 명명되면서 활발한 지명의 화동성(和同性)이 나타나고 있다(표 2; 지현영, 2011).⁶⁾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리산 지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 즉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한자 지명으로서의 속리산(俗離山)은 이 일대의 산지를 지칭하는 최초의 원초 지명인가?⁷⁾ 아니면 한자 지명 이전의 또 다른 고유

지명이 후대에 속리산으로 개명된 것인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결국 “*송이산(俗離山(속리산)) (俗離: ‘송이-’의 유사 음차 표기)이라는 후자의 질문에 지명 변천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속리산의 원초 지명으로 음성 언어로서의 ‘송이산’을 상정하였다. 그 명명 유연성은 두 가지로 비정되는데, 첫째 ‘송이(버섯)’가 많이 생산되어 ‘송이산’으로 불리었거나, 둘째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던 은어(隱語)인 ‘송이’로 속리산의 돌산[石山]적 형태를 비유하면서 *송이산’으로 불리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후 고유 지명 ‘송이산’은 신라 진흥왕 14년(553년)인 6세기 중반에 불교 사찰 법주사(法住寺)가 건립되면서, 이 일대의 주요 지명 언중으로서 새롭게 유입된 불교 승려들에 의해 ‘송이-’ 지명이 지닌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이미지를 제거 내지는 대체하기 위해 불교적이고 탈속적인 의미를 지닌 기호(sign), 즉 ‘세속을 떠나 있는 산’으로서의 문자 언어 ‘俗離山(속리산)’으로 개명(음차 표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절은 위의 필자가 상정한 지명 변천 경로를 입증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고유 지명 “*송이산”은 어떻게 불교적 이데올로기 기호화 과정을 겪으면서 불교 지명으로서의 ‘속리산’이 되었는가?

『新增』(1530) 보은현(報恩縣) 사묘조(祠廟條)에는 속리산의 정상인 천왕봉에 “大自在天王祠”라는 사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표 2). 이때 ‘大自在天(대자재천)’이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파괴의 신 시바(Shiva)가 불교에 수용되어 얻은 이름으로, ‘대자재’는 시바의 별칭인 마헤수바라(Mahesvara)를 의역한 말로, 대천세계(大千世界)를 자유롭게 주재한다는 뜻이다(두산백과; 한국민족대백과, <http://terms.naver.com>). 인도에서는 시바의 남근(男根)을 숭배하는 신앙이 전하는데 이 신앙은 일본과 한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있으며, 과거 지리산과 설악산, 그리고 현재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301번지에 있는 해신당(海神堂)에는 남근 조각공원인 성(性)민속공원이 조성되어 지역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뉴시스, 2008.12.31.).

속리산의 경우, 남근공의(男根供儀)의 오랜 전통을 속리산 산신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新增』(1530) 보은현 사묘조에는 “보은 속리산 마루에 대자재천왕사가 있다. 그 신이 해마다 10월 인일(寅日)에 법주사(法住寺)에 내려오면 산중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하며 신을 맞아다가 제사한다. 신은 45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간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이능화(1927; 2008, 408)에 의하면 음력 선달 그믐날에 법주사 승려들이 큰 모임을 갖고 제사를 행했는데, 나무 방망이로 남자 성기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붉은 칠을 해서, 한바탕 놀이를 벌여 속리산 여신에게 공물로 바쳐 위로했다고 한다. 이 신앙은 본래 민간 신앙이었던 것이 후대에 불교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두산백과; 한국민족대백과, <http://terms.naver.com>).⁸⁾

앞서 언급한 조선 말기 및 일제강점기 초에 법주사 승려들이 속리산 산신제가 끝나고 남근공의를 연희화하여 행했던 ‘송이(松茸) 놀이’는 매우 음란하고 외설적이었다고 한다. 속리산 산신제를 지낼 때 남근을 들고 춤을 추던 이 놀이는 후대에 ‘송이 놀이’로 전승되었고, 구한말 혹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음사(陰祀)로 폐지되어 속리산에 있는 산신당에서 엄숙한 유교식으로 변형되어 제사지내 왔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은군-민속, <http://terms.naver.com>; 이능화, 2008, 408). 이후 송이놀이는 1999년 이후 다시 부활하여 지금까지 산신제의 주요 행사로 벌어지고 있다.⁹⁾ 이때 ‘송이’는 남근과 유사하게 생겨 스님들이 남근을 지칭하는 은어(隱語)로도 사용했으며, 최남선은 “조선어 남녀근명칭 어원고”에서 남자 성기를 ‘송이’로 표현하였다(월간 산, 571호, 2017.05.26.; 이능화, 2008, 408).

한편 속리산의 기반암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흑운모 화강암과 반상 화강암 등의 중생대 화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위성에서 본 한국의 산지 지형 속리산, <http://terms.naver.com>). 이로 인하여 시·원생대 편마암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리산 및 오대산 등과 같은 흙산[土山]과 달리, 불이 타오르듯 기암괴석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돌산[石山]의 양기(陽氣)가 넘치는 남성적인 화성(火星)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산 모양에 주목한 이중환(李重煥,

표 2. 속리산 지명의 변천

지명	三國 (1145)	高麗/世宗 (1451-54 / 1454)	新增 (1530)	東國 (1656-73)	輿地/戶口 (1757-65 / 1789)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朝鮮/舊嶺/新舊 (1911? / 1912 / 1917)	韓國 (1970 / 1978)	보은/상주 / Daum (1994 / 2010 / 2017)	비고	
속리산 송이산?	*俗離山(新羅本紀憲德王十四年(822년)春三月十八日)俗離岳(雜志)祭祀三年(山郡)	**俗離山(高麗世宗)俗離山(志)地理二 尚州牧保齡郡新羅時稱俗離岳爲中祀)俗離王(世家)恭愍王 11年(1362년)俗離山(俗離山)俗離寺(「世宗」清州牧報恩縣名山俗離新羅時稱俗離岳爲中祀)松茸(「世宗」尚州牧報恩縣土產條)	***俗離山,俗離寺,法住寺,報恩縣·尚州牧山川條)俗離岳,小金剛山(報恩縣山川條)俗離山(報恩縣·尚州牧土產條)松茸(報恩縣土產條)	****俗離山,俗離寺,法住寺,報恩縣山川條)俗離山(尚州牧山川條)俗離岳,小金剛山(報恩縣山川條)俗離山(俗離山)俗離寺,法住寺,報恩縣山川條)俗離山(報恩縣·尚州牧土產條)	*****俗離山,俗離寺,法住寺,報恩縣山川條)俗離山(尚州牧山川條)俗離岳,小金剛山(報恩縣山川條)俗離山(俗離山)俗離寺,法住寺,報恩縣山川條)俗離山(報恩縣·尚州牧土產條)俗離山(俗離山)俗離寺,法住寺,報恩縣山川條)俗離山(報恩縣·尚州牧土產條)	*****俗離山,俗離寺,法住寺,報恩縣山川條)俗離山(尚州牧山川條)俗離岳,小金剛山(報恩縣山川條)俗離山(俗離山)俗離寺,法住寺,報恩縣山川條)俗離山(報恩縣·尚州牧土產條)俗離山(俗離山)俗離寺,法住寺,報恩縣山川條)俗離山(報恩縣·尚州牧土產條)	俗離山,俗離寺(「大志」報恩山水條)俗離岳壇(「大志」報恩壇遺條)俗離山(「大志」尚州牧山水條)俗離山,俗離面(「青邱」)俗離山(1872)報恩郡地圖)俗離山(1872)聞慶郡地圖)俗離寺(1872)報恩郡地圖)俗離(「大志」報恩坊面條)小金剛(金得研)	俗離山(「朝鮮,尚州郡北北面山名壯岩里)속이면(俗離面)「朝鮮,報恩郡俗離面社坊名)속나들(俗離埆)「朝鮮,聞慶郡加西面野坪名內上里)俗離面(「舊嶺」,「新舊」,報恩郡)大法住寺(「朝鮮,보은군속리면寺刹名)	俗離山,小金剛(중북산전, 보은군내속리면-상주군 화북면)속라들, 속라비리(문경군 농암면 내서리)俗離山,속리명승, 소금강산(「牛腹e」)山非離俗離山이라,世俗遠離산구이고(「牛腹e」)송이봉(740m)(문경군 산전, 마성면 정라-상내리, 송이버섯이 많이 낫다 함)	俗離山(중북보은군속리산면-경북상주시 화북면)속라들,문경시농암면내서리)俗離之東(金子相)	(송이산)俗離山?(俗離)송이의 유사음차표기)*김전장 난의 진압과 정과 진압 후의 논공행상(822년)**作帝建號居離山長岬寺***分爲三派...洛東江...鋪江...達川****自此山分爲兩條...漢江...錦江...此山居三道之交*****分爲三派流注半空一派東流洛東江一派南流爲鋪江一派西流而北爲達川入于金甌속리면)내속리면·외속리면(1947년)속리산면(2007년)
진양봉			*大自在天王祠(報恩縣 祠) 俗離山(報恩縣 祠) 王祠(報恩縣 祠)	天王峯(報恩縣 山川條) 俗離山(報恩縣 祠) **俗離山祠, 天王峯(報恩縣 祠)	天王峯(海東)報恩縣) 俗離山(報恩縣) 俗離岳壇(「大志」報恩壇遺條) 天王峯(「青邱」) 天王峯, 小天王峯(1872)報恩郡地圖) 天皇山(金得研)	天王峯(「大志」報恩山水條) 俗離岳壇(「大志」報恩壇遺條) 天王峯(「青邱」) 天王峯, 小天王峯(1872)報恩郡地圖) 天皇山(金得研)	**진양봉(天王峯)「朝鮮」보은군속리면산곡명(天王峯)「朝鮮,尚州郡北北面山名長岩里)	天皇峯(중북산전, 비로봉 남쪽, 속리산에서 가장 높음) 天皇峯(「牛腹e」)	天王峯(1058m)(天皇峰)경북상주시 화북면 상오리산(64-3)(Daum)	(大自在天王)王·皇)王) 天皇峰)天王峰(2008년) **在俗離山頂 ***在俗離山頂俗稱 天王祠 ****大法住寺東在(備放) 天皇峯(無名氏, 「牛腹洞記」, 「華東勝覽」)	

주1: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주2: 항목 내의 괄음표(?)는 추정 자료임.

1690~1756)은 『擇里志』(卜居總論)(1751)에서 “감여가(堪輿家)는 속리산을 석화성(石火星)이라고 말한다. 석세(石勢)가 높고 크고, 여러 겹으로 된 봉우리가 모두 돌 끝이 뾰족 뾰족하게 모여서 마치 처음 피는 연꽃과 같기도 하고, 멀리서 햇불을 벌린 것과도 같다”라고 형용하였다(노도양 역, 1988, 344). 하늘을 향해 돌출해 있는 문장대, 청법대, 신선대, 입석대 등을 바라보면 속리산의 모양은 마치 ‘송이(버섯)’, 혹은 남성의 ‘송이’를 닮아 있다.

그런데 속리산이 위치한 보은군과 상주시의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 사이의 옛 기록에는 토산 품으로 송이버섯(‘松茸’, ‘松蕈’)을 기록하였다(표 2). 또한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CD)』(1998)을 통해 ‘송이-’를 전부 지명소로 하는 지명들을 찾아보면 전국적으로 총 47곳이 발견된다. 대체로 이 지명들은 명명 유연성으로 송이버섯이 많이 나가나 송이버섯 혹은 꽃송이처럼 생긴 지형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고유 지명 ‘송이-’를 한자로 차자 표기할 경우 모든 곳에서 음차 표기(松茸山, 松義山, 松茸峯, 松茸峙, 松栢谷, 松耳谷, 松伊- 등)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⁰⁾

이상의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속리산의 원초 지명으로 ‘*송이산’을 상정해볼 수 있다. 즉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산’, 혹은 ‘남성의 성기 ‘송이’를 닮은 돌산’이라는 순수한 지리적 실체(geographical feature)에서 유래한 명명 유연성을 추정할 수 있다. 고유 지명으로서의 ‘*송이산’은 6세기 중반 법주사가 창건되면서 속리산에 거주하는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 즉 불교 승려들의 물질적·정신적 토대에 연결되어 사회적 액센트나 이데올로기적 가치 평가를 부여받게 되고, 동시에 승려들의 담론 내에 놓인 다른 이데올로기적 단어들(四聖諦, 八正道, 輪廻, 出家, 解脫, 涅槃 등)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담론 과정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이후 이데올로기적 가치평가 부여와 담론 과정을 통과한 ‘*송이산’이란 지명은 불교 수행자들의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편입되어 구체적 형태를 지닌 이데올로기적 기호가 되고, 특정한 지명 의미를 지닌, 요컨대 ‘송이-’ 지명에 내재된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이

미지를 대체하기 위해 ‘俗離山’으로 기호화되었을 것이다. ‘*송이산’의 불교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전부 지명소 ‘송이’를 유사한 소리를 가지면서 동시에 불교적 이데올로기를 간직하고 있는 한자, 즉 ‘俗離’(속리)로 차자표기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¹⁾

3. 인문 지명의 분포와 풍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1) 인문 지명의 분포와 변천

연구지역에 포함된 주요 인문 지명으로는 촌락 지명(-동, -리) 8곳, 명승 지명(-구곡, -산성, -사) 3곳, 도합 11곳이 분포한다. 이 중 우복동과 저음동을 제외한 9곳의 인문 지명의 분포와 지명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촌락 지명의 경우 만수동, 묘막리, 용유동, 장암동(장바우), 용화동, 선섬이(상오리) 등 6곳이 분포하고 있다. 속리산 천왕봉의 남쪽, 피앗재를 통해 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선섬으로 통하는 소규모 곡지에 위치한 만수동(萬壽洞)은 20세기에 들어와 명명된 짧은 나이를 가진 지명으로 보인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만수계곡 하류에 위치한 三巨里(삼거리)(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삼거리)가 당시의 만수동 일대의 대표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당시 만수동 일대에는 촌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다만 행정구역상 삼거리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세기 초에 이르러 이 일대를 지칭하는 독자적이고 공식적인 동리(洞里) 이름, 즉 만수리로 개명되기 이전의 지명인 墓幕(묘막), 墓幕里(묘막리)가 등장한다. 이 지명은 조선 현종 때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한 임의백(任義伯, 1605~1667)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묘막을 명명 유연성으로 하고 있다. 이후 묘막리라는 지명은 1987년 보은군 조례를 통해 萬壽里(만수리)로 바뀌고 현재는 만수리 내의 자연 마을로 존속하고 있다. 만수리라는 지명은 1970년에

표 3. 속리산 인문 지명의 변천

지명	신증 (1530)	東國 (1656-73)	輿地/戶口 (1757-65/1789)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朝鮮/舊韓/新舊 (1911?/1912/1917)	韓國 (1970/1978)	보은/상주/Daum (1994/2010/2017)	비고
민수동			三巨里(報恩,坊里條) 三巨里(『戶口』報恩,俗雜面)		삼거리(三街里)『朝鮮』보은군 속리면 동리촌명 삼거리유역(三街酒幕)『朝鮮』보은군 旺來面 酒幕名 三街里(『舊韓』,『新舊』報恩郡,俗雜面)	萬世洞(보은군 내속리면) 萬壽里(『報恩』,『新舊』,『舊韓』)행정내 속리산면(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길(Daum)	(鮮·世)壽 *墓幕里(1987년 근조례), 냉골, 무박추리, 산막, 괴앗재 등 마을 칠거 (1977년 화전경리사업)	
모막					모막(墓幕里)『朝鮮』報恩郡 俗雜面 洞里村名 墓幕里(『舊韓』,『新舊』報恩郡 俗雜面)	墓幕,墓幕里(보은군 내속리면)	*墓幕,모막친,墓幕里(『報恩』,『新舊』)행정내 俗雜面 萬壽里(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조선 원종 때 충청도 관찰사 역임한 豐川 任襄伯의 묘 소관리(현재 모소아래에 재실 위치)
용유동	龍游洞 (鄭琢,題雙龍寺同游寺同游錄)	下龍游洞(李敏求) 龍遊洞(金昌翁)	龍游洞(尙州 坊里條 輿地圖 化北面) *龍游洞(開慶 山川條) 龍游洞(『釋里』卜居) 龍游洞(『戶口』尙州 化北面) 龍游洞亭(『備邊』尙州) 龍游洞亭(『備邊』開慶) 龍游洞(『朝國』開慶) 龍游洞(『海東』開慶縣) 龍游洞(『地乘』開慶縣) 龍游洞(李肯翊)	龍遊洞(『大志』開慶 山水條) 龍游洞(『青邱』) 龍遊之勝(金得研) 下龍游洞(鄭象觀) 仙遊洞(3곳)(1872)開慶地圖)	**龍遊洞 龍遊里(상주군 화북면) 龍遊水石(『牛腹』)	용우고,용유친,龍遊里(상주시 화북면)(Daum) 瓶泉之龍遊洞天(金子相)	(遊·游)遊 *在佛日 山北五里 白石平鋪 大川流其上 有群龍遊戲 之狀故名 下有深窞 不見其底 語謔 宋明欽 亭舍在其上 **예전에는 용유 인쪽에 있는 현 상오리, 장암리, 용유리를 통틀어 용유동이 라하였는데, 산수가 좋기로 유명하였음	
쌍룡구곡	雙龍寺,雙龍 (鄭琢,題雙龍寺同游寺同游錄)	雙龍寺(『備邊』開慶) 雙龍,深窞(李萬敷) *雙龍,雙龍寺,靑瑤潭,靑玉峽,龍窞(宋明欽,緇泉記略)	雙龍寺(『備邊』開慶) *雙龍,雙龍寺,靑瑤潭,靑玉峽,龍窞(宋明欽,緇泉記略)	雙龍巨瀑(金得研)	쌍용점(내상리)『朝鮮』開慶郡 加西面 洞里村名	**雙龍,雙龍龍窞(문경군 농암면 내서리) 쌍용폭포, 武萬九曲, 退溪先生 仙遊九曲, 尤菴先生 華陽九曲(『牛腹』) 雙龍九曲詩, 龍岡, 四友亭, 書雙龍九曲詩 後 雙龍(閔鳳植) 雙龍, 龍崗(閔鳳植, 四友亭記)	雙龍,친주교,쌍용공소,쌍용계곡,쌍룡터널,쌍룡교(문경시 농암면 내서리)(Daum) 雙龍溪谷,靑瑤潭之太極亭(金子相) 雙龍寺(농암면 읍수리 17-1)(Daum)	(九曲)溪谷 *先君年二十二...定爲九曲 瓶泉即第六曲也(宋明欽,緇泉記略) **속리들 서남쪽에 있는 마름, 쌍룡용추가 있음, 四友亭이 있음
장암동 장마우			莊巖里(『戶口』尙州 化北面) 裝巖(李萬敷)	莊巖(鄭象觀) 莊岩洞(金得研)	장마우(壯岩里)『朝鮮』尙州郡 化北面 里名 (壯岩酒幕)『朝鮮』尙州郡 化北面 酒幕名 壯岩里(『舊韓』尙州郡 化北面)	장마우,壯岩,壯岩里(상주군 화북면) 장암리 壯岩洞,장암동구(『牛腹』)	장마위,장암교,壯岩里(상주군 화북면)	(莊·裝)壯 (巖)岩 (壯)岩:장마위의 음차+훈자 표기

지명	新增 (1530)	東國 (1656-73)	輿地/戶口 (1757-65/1789)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증업)	朝鮮/舊韓/新舊 (1911?/1912/1917)	韓國 (1970/1978)	보은/상주/Daum (1994/2010/2017)	비고	
용화동 용화계(尙州牧 山川條俗離山)	**龍華(尙州牧 山川條俗離山)	**龍華(尙州牧 山川條俗離山)	龍華(尙州山川條 俗離山) 龍華洞(『釋里』 靑川南) 龍華里(『戶口』 尙州化北面)	龍華洞(『大圖』 溇州) 尙州龍華界(『1872』 報恩郡地圖) 龍華洞,大藥亭村(李圭 景)	(雲輿里)『朝鮮』尙州郡 化北面(村名) 雲輿里(『舊韓』 尙州郡化北面)	龍華,雲輿里(상주군 화북면 운흥리) 龍華洞,山안八洞,대 흥,산흥,中伐,운흥동 (牛腹e.)	용화로, 용화보, 김진로, 스, 화북초, 용화분교, 용화삼 거리, 용화정공원(상주시 화북면 운흥리)(Daum)	용화세계(별고 미륵불의 정 토) *山西十五里許有龍華峯面 村黃陽... **山北龍華峯面洞黃陽...	
신섬이			上五十石里,下五十石里 (『戶口』尙州化北面) 五十島(李萬敏)	自長脚洞距宋樂川亭 至靑華洞十里(『牛腹 c.)	웃신섬이(上五里),아래신섬 이(下五里)(『朝鮮』尙州郡 化北面里名) 신섬골(五十石谷)(『朝鮮』尙 州郡化北面(谷名坪溫里) 上五里,下五里(『舊韓』尙州 郡化北面)	*신섬이,五十石,牛腹 洞,下五里,上五里 (상주군 화북면 상오 리) **장각골,長角洞,長角 里(화북면 상오리)	신섬,上五里(상주군 화북 면) (五十石,五五島)上五·下 五)上五里) (五十石·五五島:신섬의 흔치 및 혼음자) (長脚)長角) *지행이 소의 배처럼 생긴다 하며, 속리산의 우복동이 라하여 괴란지로 유명함 **형국이 우복동의 소의 긴 뿔에 해당한다 함 五·十川洞,五·十島(無名氏, 『牛腹洞記』,『華東勝覽』)		
견원성			*甄萱山城(聞慶古跡 條/坊里條興地圖加西 坊) 甄萱山城(尙州坊里條興 地圖化北面) 甄萱山城,山城倉(『海東』 尙州牧) 甄萱山(『備邊』尙州) 甄萱宮基(『備邊』聞慶) 甄萱城(『朝圖』尙州) 甄萱山城(『朝圖』聞慶) 甄城山(『東城』慶尙道) 阿慈介(『海東』聞慶縣)	**化寧古縣城(甄萱 城?)(『大志』尙州牧 城池條) ***加恩古縣城(甄萱城) (『大志』聞慶城池條) 甄萱城(용유동쪽) (靑邱) 甄萱城甄萱倉(은척면 ~외서면 사이)(『靑 邱』) 甄萱城(『輿圖』慶尙道)	甄萱山城(『朝鮮』尙州郡 化北面古蹟名) (甄萱城?)『朝鮮』聞慶郡加 西面 城堡名 加項洞前)	甄萱城,견원성(상주군 화북면 장안리) 甄萱山城,甄萱落照 (牛腹e.)	견원(산)성(상주군 화북면 장안리)(Daum)	남북-동서 방향 지질구조 신교차지점에 위치 *在加恩縣西南五里山上石 築周五百六十五尺今廢 中有一泉 **西五十里世傳甄萱城者 誤 ***一作甄萱성	
심원사			推尋寺?(聞慶 寺刹條 在華 山) 推尋寺(『備邊』聞慶)	尋源寺(『1872』聞慶地 圖)	(深源寺)『朝鮮』聞慶郡加 西面 寺刹名)	深源寺,*深源龍湫(문 경군 농암면 내서리) 深源寺(牛腹e.)	深源寺,심원폭포(문경군 농암면 내서리)	(推尋)尋源)深源) *원계 32면 국도 쌍룡터널 부근	

주1: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주2: 항목 내의 괄음표(?)는 추정 자료임.

萬樹洞(만수동)으로 처음 등장하며 이후 1994년 기록에 萬世洞(만세동)과 만세암이 등장하고 있어, 대체로 ‘樹·世·壽’로의 표기 변화를 경험하였다.¹²⁾

용유동(龍遊洞)은 16세기 시문집에서 龍遊洞(용유동)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여 표기자의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龍遊洞(용유동)이 더 자주 사용되었다. 용유동의 지명 의미와 관련하여 18세기 기록에 ‘여러 용이 노니는 것 같은 형상을 닮아 명명(群龍遊戲之狀故名)’ 했다는 표현이 있어, 표기 한자를 풀이하여 지명 유래를 이해하고 있다. 한편 지명 영역과 관련하여 20세기에 용추 상류에 있는 현재의 화북면 상오리, 장암리, 용유리를 통틀어 용유동이라 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瓶泉之龍遊洞天’[金子相, 1984~1985년 상주군 함창읍장 역임, 「瓶泉精舍重修記」(1998)]이란 표현을 통해 현 용유리 병천 마을 부근을 용유동의 중심으로 이해한 흔적을 살필 수 있다(표 3).

고유 지명 ‘장바우’를 혼차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장암동(壯岩洞)은 18세기에 장암리(莊巖里), 裝巖(장암)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壯岩洞(장암동)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전부 지명소에 있어 ‘莊·裝·壯’과 ‘巖·岩’으로의 표기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된다. 불교, 특히 미륵사상의 용화세계(龍華世界, 미륵불의 정도)를 연상시키는 용화동(龍華洞)은 낙동강 유역인 용유동으로부터 백두대간이 지나는 ‘밤티’ 고개를 넘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산간 분지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용화동은 16세기에 龍華(용화)가 기록된 이후 표기자의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현재 행정 지명으로서의 지위는 운흥리 및 중벌리(상주시 화북면)에 넘겨주고 대신 용화로, 용화보건소, 용화삼거리, 용화정공원 등의 지명으로 존속되고 있다.

원섬이(五十石, 上五里)는 18세기에 上五十石里(상오십석리), 下五十石里(하오십석리), 五十島(오십도)라는 기록으로 등장하고 있다. 五十石(오십석)과 五十島(오십도)는 각각 ‘원섬’의 혼차 및 혼음차 표기로 보인다. 당시에 이미 상·하로 촌락이 분동되었을 만큼 인구가 일정하게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20세기 『韓

國』(1978) 문헌에 등장하는 화북면 상오리 내의 자연 마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3).

원섬이(五十石, 上五里): 지형이 소의 배처럼 생겼다 하며, 속리산의 우복동이라하여 피란지로 유명함.

장각골(長角洞): 형국이 우복동의 소의 긴 뿔에 해당한다 함.

이 자료를 통해 앞서 자연 지명의 변천에서 언급된 17세기 십승지로 거론된 속리산 중항 근처와 19세기 풍수적 길지로 유행한 우복동(牛腹洞)의 등장, 그리고 이상향으로서의 풍수적 명당을 찾아 이곳까지 이동해 온 이주민들의 증가를 상정할 수 있다. 한편 표기 변화와 관련하여 上五十石里(상오십석리)와 下五十石里(하오십석리)는 간략히 축약된 형태인 상오리와 하오리로 20세기 초반에 나타나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하오리가 상오리에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명승 지명으로 분류한 세 지명으로 쌍룡구곡, 견훤산성, 심원사가 있다. 쌍룡구곡(雙龍九曲)은 본래 하천 지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자연 경관이 유교적 지식인들에 의해 구곡문화가 반영된 문화 경관으로 변형된 점을 고려하여 인문 지명으로 분류하였다.¹³⁾ 쌍룡구곡은 북쪽의 청화산-시루봉-비치재 능선과 남쪽의 갈령-도장산 능선이 만나는 산지 사이를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영강 상류 유역의 협곡에 위치하고 있다. 쌍룡구곡의 전부 지명소인 쌍룡은 이른 시기인 16세기 시문집에 雙龍(쌍룡)과 雙龍寺(쌍룡사)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표 3). 이후 촌락 지명으로서의 쌍룡과 쌍룡점, 쌍룡폭포, 쌍룡용추 등으로 기록되었고, 현재에는 쌍룡공소, 쌍룡터널, 쌍룡교 등과 같은 다양한 파생 지명이 명명되어 쓰이고 있다.

甄萱山城(견훤산성)은 다른 지명과 달리 역사 속 실존 인물의 이름에서 유래한 관방시설 명칭이다. 후백제(892~936)를 건국한 견훤(甄萱, 867~936)은 연구 지역 인근에 위치한 현 문경시 가은읍(옛 가은현)

에서 출생한 것으로 전하며, 이른 시기부터 그가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산성들과 그의 부친으로 알려진 ‘阿慈介(아자개)’가 18세기 상주목과 문경현을 설명하는 고문헌과 고지도에 다수 등장하고 있다(표 3). 현재까지 견훤산성은 표기자의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으며, 20세기 자료에는 구개음화된 형태의 ‘진현성’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사찰 지명이기도 한 심원사(深源寺)는 18세기 문헌과 지도에 推尋寺(추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세기에는 尋源寺(심원사),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비로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기인 深源寺(심원사)가 기록되었다. 대체로 전부 지명소가 ‘推尋(尋源)深源’으로 변천하였다.

2) ‘우복동’ 지명의 풍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우복동 찬가”

우복동(牛腹洞)은 어디인가? 조선 후기 사회적 혼란은 사람들, 특히 정감록을 신봉하는 비결파(秘訣派)들로 하여금 굶주림과 전쟁, 그리고 질병이 없는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의 이상향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갈망은 『정감록(鄭鑑錄)』이라는 풍수 도참서를 유행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셋째는 報恩 俗離山 四甌項 근처로 난리를 만나 몸을 숨기면 만에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三曰 報恩 俗離山 四甌項 延地니 當亂藏身하면 萬無一傷이니라)”[『鄭鑑錄』(鑑訣); 이민수 역주, 1993, 22-27], “보은의 속리산 아래 중항 근처로서 난리를 당했을 때 이곳에 몸을 숨기면 만에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대로 보존할 땅은 아니니라(報恩俗離下 蒸項近地니 此地則當亂藏身하면 萬無一傷이니라. 然이나 不是世保之地니라)”[『鄭鑑錄』(南格庵山水十勝保吉之地); 이민수 역주, 1993, 104-108], 혹은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취하고, 다른 사람은 갈지라도 나는 머무른다. 속리산의 증항이 비록 길하긴 하지만 먼 저 망하고 나중에 사는 만큼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어찌 꼭 증항뿐일 것인가? 가까이에 있는 땅 역시 좋다(人棄我取하고 人去我留라 俗離甌項이 吉則吉矣나 先亡後生하니 後入最可니라. 何必甌項이 리요 近地亦可니라)”[『鄭鑑錄』(西溪李先生家藏訣);

이민수 역주, 1993, 131-134] 등과 같은 이상향으로서의 ‘속리산 증항’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후 속리산 증항(*시루목) 부근에 대한 가거지(可居地) 탐색은 ‘우복동’이라는 구체적인 풍수적 길지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우복동은 19세기 문헌에 ‘牛腹洞’(우복동), ‘眞牛腹洞’(진우복동), ‘假牛腹洞’(가우복동) 등의 표기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표 4). 그 이전 시기에도 전부 지명소인 ‘우복-’이란 표기를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호(‘愚伏’)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복동’이라는 실제 장소의 이름에서 음차 표기하여 인용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와 그의 후손들의 생활 무대(우복 중가, 우복정 등)가 우복동의 핵심지역인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현재의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후 우복동 관련 지명은 20세기 초반 문헌에 ‘牛腹山’(우복산)(『朝鮮』聞慶郡 加西面 山谷名 內下里), 20세기 후반 문헌에 ‘牛腹洞’(상주군 화북면 상오리 선섬이), ‘牛伏山’(문경군 농암면 화산리)이 나타난다. 현재는 ‘우복동’(상주시 화북면 우복동길 227-39), ‘우복동마을’(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25-9,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우복동길’(상주시 화북면 용유리~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우복지’(청화산 우복지), ‘용유2리 우복동’(용유1길 45 옆), ‘우복골’(승무산 아래 식당 이름), ‘牛福山’(문경군 농암면 화산리 귀밀 뒷산), ‘조선 십승지 우복고을 화북’(갈령터널 남측 입구 간판) 등이 분포하고 있다(표 4). 이를 통해 우복동의 핵심 지역이 대체로 현재의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상오리와 이곳과 인접한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화산리 일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복동 핵심지역에서 벗어난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우복동 어디메냐...우복동 좋을시고...우복동 왔거들랑’(화령의 노래·비)], 그리고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牛福洞)와 보은군 마로면 임곡리(牛腹洞)(두산백과, 구병리·임곡리, <http://terms.naver.com>) 일대의 지명 언증들도 자신들의 거주지를 ‘우복동’으로 인식하여 풍수적 이상향으로 자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표 4).

표 4. 우복동 지명의 변천

지명	興地/戶口 (1757-65/1789)	東興/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朝鮮/舊韓/新舊 (1911?/1912/1917)	韓國 (1970/1978)	보은/상주/Daum (1994/2010/2017)	비고
우복동 진우복동 가우복동	愚伏洞二十畝 (鄭經世, 1563-1633) 愚伏亭, 牛頭山 (《備邊》尙州) 牛頭山(《朝圖》尙州) 北澗, 歸雲洞, 淸隱堂(宋明欽, 瓶泉記略)	牛腹洞(牛腹ab.) 眞牛腹洞, 假牛腹洞(牛腹c.) *世傳牛腹洞在俗離山中云(牛腹d.)	(牛腹山)(朝鮮)聞慶郡加西面山谷名內下里	牛腹洞(신섬이, 상오리)(상주군 화북면 상오리) 牛伏山(문경군 농암면 화산리, 모양이 소가 앞드린 것 같아 되었다 함) 牛腹名區, 牛腹八景 찾아보세, 道說禪師 이곳에서 牛腹版局 둘러보고, 터마다 明堂이오, 팔관동(牛腹e.)(김자상, 유교넷, 안동의 기사)]	우복동(상주시 화북면 우복동길 227-39/ 용유리 179)(Daum) 우복동마을(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25-9/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Daum) 우복지(청화산 우복지)(Daum) 용유2리 우복동(용유1길 45옆) 우복골(송무산 아래 식당) 牛福山(문경군 농암면 화산리, 귀밀 뒷산) 조신 심승지 우복고을 화북(김평터널 남측 임구 간판) 天陞地秘之牛腹洞天, 歸雲洞之淸隱堂(金子相) 牛腹洞(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신섬이) **우복동(화령의 노래)] 愚伏洞(정경세] 563-1633, 「愚伏洞二十畝」)(상주시 의서면 우산리 우복중가) 牛福洞(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 牛腹洞(보은군 마로면 임곡리)	(소눈~소누~소낙골) 牛伏洞)牛腹洞?) *過此則石刻牛腹洞三字(牛腹d.) '牛'자 새긴 바위(명천교 부근 절벽)(EBS, 한국기행) **우복동 어디에 나... 우복동 좋을지 고... 우복동 왔거들랑(화령의 노래)비(화령장지구전적비 동편 비석 무리)(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산2-8부근) 牛腹洞, 八判洞(無名氏, 「牛腹洞記」, 『華東勝覽』) (猪: 뜻의 혼자 및 혼음자) (音: 우름의 음자) *聞慶靑華山下深阻險僻處有猪音洞(俗名 뜻 우름골)
저우름골 뚫우름골		*猪音洞(뚫우름골)(牛腹d.)				

주1: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주2: 항목 내의 풀음표(?)는 추정 자료임.

이 같은 사례들을 통해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이 「牛腹洞眞假辨證說(우복동진가변증설)」(『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서 고민했던 ‘진짜 우복동’의 유무와 ‘가짜 우복동’에 대한 판별보다는, 17세기 이래로 ‘우복동’을 찾으려는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했으며 그 결과 속리산 증향(*시루목, 시루봉) 근처, 즉 백두대간 고갯마루 부근에 산재한 소규모 산간 곡지나 분지 지형들이 ‘상상하고 희망하는 자들’에 의해 ‘소의 뱃속’과 같은 ‘우복동’으로 강렬하게 인식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우복동*들은 모두 산간 곡지나 소규모 산간 분지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나름의 ‘시루봉’, 즉 용유리 및 내서리 우복동을 위한 청화산 시루봉(876m)(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산2), 그리고 구병리 및 임곡리 우복동을 위한 구병산 시루봉(417m)(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산 28)을 각각 풍수적 이상향으로서의 중요한 분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다.

17세기 이래 300여 년간 ‘우복동’을 상상하고 동경하는 풍수적 희망과 신념은 「牛腹洞 讚歌」(우복동 찬가)로 완결된 듯하다. 지난 1984~1985년 사이 당시 상주군 함창읍 읍장을 지낸 김자상(金子相)은 장문의 이 가사에서 ‘우복동’의 공간적 범위를 현재의 상주시 화북면 전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인식을 토대로 그는 속리산이 만들어낸 우복동의 풍수적, 유교적, 불교적, 도교적 아름다움을 ‘우복동’을 포함한 상주시 화북면 일대의 주요 지명들을 나열하며 찬양하였다(유교넷, 안동의 가사, <http://www.ugyo.net>).¹⁴⁾ 그는 또한 다른 글에서 우복동을 “天壑地秘之牛腹洞天(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겨 둔 우복동 천)”(「甌泉精舍重修記」, 1998)이라고도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복동’ 지명의 풍수적 의미와 지명 영역의 분포 논의는 앞서 ‘속리산’ 지명의 불교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복동’ 이전의 원초 지명에 대한 존재 여부를 묻게 한다. 한국 지명의 오랜 차자표기 전통과 역사를 고려했을 때 ‘우복동’이란 한자 지명 또한 차자표기 이전의 순수한 고유 지명으로서의 선(先) 지명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우복동의 가능한 차자표기 경로를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즉 ① *소굿골~*소구붓

골>牛伏洞>牛腹洞 [훈차+훈(음)차+훈차표기], ② *소눈골~*소누골~*소눗골>牛伏洞>牛腹洞 [훈차+훈(음)차+훈차표기], ③ *소복골>牛伏洞>牛腹洞 (훈차+음차+훈차표기), ④ *소배골>牛腹洞 (훈차표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¹⁵⁾ 이 네 가지 경로는 한자 지명의 전부 지명소 ‘牛腹’을 표기 가능케 한 고유 지명들의 존재를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CD)』(1998)을 통해 검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첫째, 현재 전부지명소 ‘소굿~소구붓’이 포함된 고유 지명은 전국에 4곳만이 분포하고 있다. 그중 ‘소굿-’형은 3곳, 즉 소굿고랑(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소굿골(경남 거창군 마리면 고향리), 소굿들(경남 함양군 휴천면 운서리)이 나타나며, ‘소구붓-’형은 1곳, 즉 소구붓재(경남 울주군 농소면 매곡리, 가팔라서 소가 자주 굴렀다 함)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명들에서 ‘牛伏-’이라는 차자 표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전부지명소 ‘소눈~소누~소눗’이 포함된 고유 지명은 전국적으로 25곳이 분포하였다. 그중 ‘소눈-’형은 전국에 9곳(소눈골 6, 소눈이 1, 소눈재 1, 소눈제 1)이 분포하였으며, 동물 소[牛]와 관련된 곳은 4곳이었다.¹⁶⁾ ‘소누-’형은 전국적으로 10곳[소누개재 1, 소누고개 1, 소누골 3, 소누골고개 1, 소누골보 1, 소누도 1, 소누분방우(와우암) 1, 소누실(손골) 1]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와 관련된 지명은 3곳이었다.¹⁷⁾ ‘소눗-’형의 경우 전국에 6곳(소눗골 4, 소눗골재 1, 소눗재 1)이 분포하였고, 이중 소와 관련된 곳은 2곳이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형태들은 한자 지명으로 차자 표기되는 경우, ‘牛目-’과 ‘臥牛-’만 나타날 뿐 ‘牛伏-’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 경북 경산시 남산면 우검리에 있는 ‘우복골’의 지명 유래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어, ‘누워있다’라는 의미가 ‘伏’(엎드릴 복)으로 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전부지명소 ‘소복-’은 전국에 9곳(소복골 2, 소복당 2, 소복동 1, 소복리 1, 소복산 1, 소복이 1, 소복이들 1)만이 분포하였고, 소와 관련된 곳은 1곳[소복이(召福里, 召福洞)(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뒤에 소가 있었다 함)으로 차자표기 또한 ‘召福-’으

로 나타날 뿐이었다. 넷째, 전부지명소 ‘소배-’는 전국적으로 5곳[小褰里(작은배리) 1, 소배리지 1, 소배미(小粟, 밤나무꼴) 2, 소배재 1]이 분포하였고, 소와 관련된 곳은 없었고, 차자표기 또한 ‘小褰-’와 ‘小粟’로 나타날 뿐이었다.

한편 ‘牛伏洞’과 ‘牛腹洞’의 명명 순서를 가늠하기 위해 전부 지명소 ‘우복-’의 분포를 동일한 문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25곳[‘우복’ 3곳, ‘우복실(牛伏谷)’ 1, ‘우복골’ 2, ‘우복골저수지’ 1, ‘우복광산’ 1, ‘우복동’ 5, ‘우복동안골짜기(牛伏洞內谷)’ 1, ‘우복등’ 1, ‘우복리’ 2, ‘우복보’ 1, ‘우복사당’ 1, ‘우복산’ 3, ‘우복잇들’ 1, ‘우복지’ 1, ‘우복통’ 1]이 발견되었고, 그중 소와 관련된 곳은 7곳(소가 옆드린 형국 6곳, 지형이 소의 배같이 생긴 곳 1곳)이었다. 이 7곳의 차자 표기는 5곳이 ‘牛伏-’, 1곳이 ‘牛腹-’이었고, 나머지 1곳은 한자 표기가 없었으나 지명의 의미를 감안할 경우 ‘牛伏-’일 가능성이 높았다.¹⁹⁾ 그러므로 우세한 분포와 차자표기를 보이는 ‘牛伏-’이 보편적으로 명명되었고, 후대에 ‘牛腹-’이 ‘牛伏-’으로부터 개명됐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새롭게 명명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앞으로 광범위한 지명 조사와 심도 있는 지명 분석이 요구되나, 이상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소굿골~*소구붓골>牛伏洞>牛腹洞, *소눈골~*소누골~*소눗골>牛伏洞>牛腹洞, *소복골>牛伏洞>牛腹洞, *소배골>牛腹洞 등으로의 지명 변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유 지명 *소굿골, *소눈골, *소복골 등에서 한자 지명 ‘牛腹洞’으로의 변천 과정을 풍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대입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유 지명으로서의 *소굿골, *소눈골, *소복골은 『輿地』(1757-1765)와 『戶口』(1789)를 통해 소규모 촌락 지명이 대거 한자 지명으로 차자 표기되는 18세기에 ‘牛伏洞’으로 훈(음)차와 음차 표기되어 통용되었을 것이다(김순배, 2012, 37). 이후 18~19세기에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 즉 풍수 도참사상을 따르는 정감록 비결과들이 속리산 증향 근처로 이주해 오면서 그들이 입지한 산간 곡지 내지는 분지 지형을 풍수 형국론에 따라 ‘소의 뱃속’으로 동일시하여 ‘牛腹洞’이라는 풍수 지명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

때 산간 곡지나 분지 지형은 그들에 의해 외부세계와 일정하게 차단되면서 자족적이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의 뱃속과 같은 풍수적 길지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牛伏洞’이란 지명은 속리산 증향 근처에 거주하는 정감록 비결과(풍수가, 감여가, 지관 포함)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토대에 연결되어 사회적 액센트나 이데올로기적 가치평가를 부여받게 되고, 동시에 그들의 담론 내에 놓인 다른 이데올로기적 단어들(氣, 陰陽五行, 同氣感應, 藏風得水, 三災不入之地, 形局, 明堂 등)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이후 이데올로기적 가치 평가와 담론 과정을 통과한 ‘牛伏洞’이란 지명은 정감록 비결과들의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편입되어 구체적 형태를 지닌 이데올로기적 기호가 되었으며, 특정한 지명 의미를 지닌 ‘牛腹洞’으로 기호화 되었을 것이다. 결국 ‘牛伏洞’의 풍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이란 마을 지형 및 형국에 대한 인식을 ‘소가 누워 있는 형국’에서 ‘소의 뱃속과 같은 형국’으로 변형 내지는 풍수적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이자, 동시에 전부 지명소 ‘牛伏’이 이와 비슷한 소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풍족해 되 더 폐쇄적이고 외부와 차단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차별화된’ 풍수적 이데올로기를 간직한 ‘牛腹’(우복)으로 음차 표기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4. 결론

지명은 모든 사람에게 순수한 중립적인 존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이 곧 본 논문의 궁극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지명의 의미와 변천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이 소유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비중립적으로 개명될(renaming) 수 있다. 주요 연구 대상이었던 속리산과 우복동 지명 또한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의 궤적 속에서 변해왔다. 즉 553년 법주사의 입지 이후 ‘속리산’ 지명은 불교도들에 의해 불교적으로 변용되었고, ‘우복동’ 지명 또한 조선 후기 풍수 도참사상의 영향으로 정감록 비결과들에 의해 풍수적으

로 변천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과 우리나라 지명의 음차 표기 전통을 고려하여, ‘속리산’과 ‘우복동’ 지명의 원초 지명으로 추정되는 ‘*송이산’과 ‘*소긱골’, ‘*소눈골’, ‘*소복골’ 등이 불교 및 풍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을 거쳐 각각 불교 지명과 풍수 지명으로 음차 및 훈(음)차 표기되어 기호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속리산과 우복동 주변에 분포하는 주요 자연 지명(산 지명, 고개 지명, 하천 지명 등)과 인문 지명(촌락 지명, 명승 지명 등)은 대체로 순수한 고유 지명 형태를 유지해 오거나, 고유 지명이 시대별로 유입해 온 다양한 사회 및 문화 집단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변천해 오기도 하였다. 전자의 사례로 고개 지명 늘치(於峙)는 17세기에 ‘於乙峴(어을현)’, ‘磬峙(얼치)’와 같이 각각 ‘늘’의 받쳐적기(於乙)와 음차 표기(磬)로 기록된 후, 19세기에는 於嶺(어령), 20세기에 於峙(어치), 於項(어항, 늘안목), 楡峙(유치)(楡: 늘의 훈음차 표기) 등으로 표기되어 순수한 고유 지명의 의미와 형태를 유지해 왔다. 또한 촌락 지명 선십이(五十石, 上五里)는 18세기에 上五十石里(상오십석리), 下五十石里(하오십석리), 五十島(오십도)라는 기록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五十石(오십석)과 五十島(오십도)는 각각 ‘선십’의 훈차 및 훈음차 표기로 보인다. 이후 상오십석리와 하오십석리는 표기가 상오리와 하오리로 간략히 축약된 후 20세기 초반에 하오리가 상오리(上五里)에 통합되어 순수한 고유 지명 형태를 유지해 왔다. 한편 선십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풍수적 명당인 ‘우복동’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사례는 외부에서 유입해온 불교, 유교, 풍수적 신념을 간직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각각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기호로 변용된 경우들이다. 즉 용화동(龍華洞)은 불교, 특히 미륵사상의 용화세계를 현실에 구현한 불교 지명이며, 하천 지명 병천(屏川)과 병천(瓶泉), 그리고 그 인근에 분포하는 바위 지명 동천암(洞天巖), 연좌암(宴坐巖), 대은병(大隱屏), 회란석(廻瀾石) 등은 17세기 이래 유교적 이상향으로서의 동천(洞天)을 찾아 이곳에 우거하거나 명승을 찾

아 유람 온 유교적 지식인들에 의해 명명되거나 개명된 유교 지명들이다. 마지막으로 ‘피앗재[避禍嶺]’는 조선 후기 『정감록』의 십승지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기근, 전쟁, 질병이 없는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의 이상향을 갈구하는 풍수 도참적 지식인에 의해 식물로서의 ‘피[稷]가 많이 나는 고개’의 의미에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고개’라는 뜻을 지닌 풍수 지명 ‘避禍嶺(피화령)’으로 음차 표기되기도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인 ‘*송이산’¹⁾과 ‘*소긱골·*소눈골·*소복골’²⁾의 불교 및 풍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속리산의 원초 지명으로 추정된 ‘*송이산’은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산’, 혹은 ‘남성의 성기 ‘송이’를 닮은 돌산’이라는 명명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고유 지명으로서의 ‘*송이산’은 6세기 중반 법주사가 창건되면서 속리산에 거주하는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 즉 불교 승려들의 물질적·정신적 토대에 연결되어 사회적 액센트나 이데올로기적 가치 평가를 부여받게 되고, 동시에 승려들의 담론 내에 놓인 다른 이데올로기적 단어(사성제, 팔정도, 윤회, 출가, 해탈, 열반 등)와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담론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데올로기적 가치 평가 부여와 담론 과정을 통과한 ‘*송이산’이란 지명은 불교 수행자들의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편입되어 구체적 형태를 지닌 이데올로기적 기호가 되고, ‘송이-’라는 지명에 내재된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俗離山’으로 기호화 되었을 것이다. ‘*송이산’의 불교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전부 지명소 ‘송이’를 유사한 소리를 가지면서 동시에 불교적 이데올로기를 간직하고 있는 한자, 즉 ‘俗離(속리)로 음차 표기 되었을 것이다.

둘째, 우복동의 원초 지명으로 상정된 ‘*소긱골·*소눈골·*소복골’ 등은 소규모 촌락 지명이 대거 한자 지명으로 차차 표기되는 18세기에 ‘牛伏洞’으로 훈차 표기되어 통용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18~19세기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 즉 풍수 도참사상을 따르는 정감록 비결과들이 속리산 중향 근처로 이주해 오면서 그들이 입지한 산간 곡지 내지는 분지 지형을 ‘소의 뱃속’으로 동일시하여 ‘牛腹洞’이라는 풍수 지

명을 만들었을 것이다. ‘牛伏洞’이란 지명은 속리산 중항 근처에 거주하는 정감록 비결과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토대에 연결되어 사회적 액센트나 이데올로기적 가치평가를 부여받게 되고, 그들의 담론 내에 놓인 다른 이데올로기적 단어(기, 음양오행, 동기감응, 장풍득수, 삼재불입지, 형국, 명당 등)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이후 이데올로기적 가치 평가와 담론 과정을 통한 ‘牛伏洞’이란 지명은 정감록 비결과들의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편입되어 구체적 형태를 지닌 이데올로기적 기호가 되었으며, 특정한 지명 의미를 지닌 ‘牛腹洞’으로 기호화 되었을 것이다. 결국 ‘牛伏洞’의 풍수 이데올로기적 기호와 과정이란 마을 지형에 대한 인식을 ‘소가 누워 있는 형국’에서 ‘소의 뱃속과 같은 형국’으로 변형 내지는 풍수적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이자, 동시에 전부 지명소 ‘牛伏’이 이와 비슷한 소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풍족하되 더 폐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차별화된 풍수적 이데올로기를 간직한 ‘牛腹’(우복)으로 음차 표기되는 과정이었다.

“세속을 벗어나도/세속의 습관은 남아있는 나에게/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산을 오르고 있지만/내가 넘는 것은 정작 산이 아니라/산 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그 하루 하루가/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나희덕, 1997)²⁰⁾

위의 시는 나희덕(1997)의 「俗離山에서」라는 제목의 시 일부이다. 세속을 떠나 속리산을 오르며 비탈진 싸움터 같은 세속의 삶을 성찰하는 시인은 ‘俗離山’ 지명의 불교적 이데올로기에 이끌려 이미 산(山)과 속(俗)의 이분법에 갇혀 있는 듯하다. 더욱이 제목을 한글이 아닌 한자로 표기하면서 ‘俗離山’이란 문자를 해독하여 탈속적이고 불교적인 시상(詩想)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듯 언어 현상으로서의 지명 표기는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이나 지리적 상상력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만약 그 산의 이름이 ‘송이산’이었다면 시인은 어떤 상상을 써 내려갔을까? ‘음식남녀(飮食男女)’의 성

적 에너지, 이드(id) 주변을 배회했을까? 아니면 송이 버섯의 맛과 향을 떠올리거나 혹은 그 모양을 상상하면서 왕성한 생명력을 노래했을까? 혹은 지배 문화에 의해 한때 축출되거나 변형되었던 ‘송이 놀이’라는 카니발(carnival)을 음미하면서 지배 문화를 희화화하고 전복하려는 민초들의 유토피아적, 해방적 저항 문화를 상상했는지 모를 일이다.

주

- 1) 이 문구에 대해 일설에는 崔致遠(857~?)이 886년(신라 현강왕 12) 속리산 묘덕암을 방문하여 남긴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경인일보, 2011.12.9.; 네이버 블로그, 속리산 좋은 글귀, <http://blog.naver.com>) 그 출처가 분명치 않다. 필자의 문헌 조사는 앞 문구는 『中庸』(第十三章)에서 인용된 것이고, 뒤의 문구는 錦溪 黃俊良(1517~1563)이 속리산을 유람하는 金弘度(1524~1557)에게 부친 시에 등장한다. 즉 ‘俗離山’이란 문구는 김홍도의 생몰 연대와 비교할 때 16세기 중반 경에 황준량에 의해 처음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뒤 전체 문구를 언급한 인물로 1568년과 1573년 두 차례에 걸쳐 속리산 住雲菴에 들어가 大谷成運(1497~1579)에게서 수학한 白湖 林梯(1549~1587)가 있다(오세옥, 1998, 『林白湖集』 해제,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그러나 임제의 문집인 『임백호집』에서는 이 문구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芝峯 李暉光(1563~1628)의 『芝峯類說』에 임제가 속리산에 들어가 『중용』을 800번 읽고 위와 같이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이 문구는 18세기 후대 지식인들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반복되어 인용되기도 하였다. 관련 원전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子曰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道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은 법이니, 사람이 도를 행하되 사람에게서 멀리 한다면, 道라 할 수 없느니라) [『中庸』(第十三章); 박일봉 역, 1988, 163-165]; “山非離俗俗離山” [『錦溪集』(內集 卷二 詩, 二日到維新寄金重遠遊俗離山)]; “林梯入俗離山 讀中庸八百遍 得句曰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 [『芝峯類說』(卷十四 文章部七, 詩藝)]; “余簡寄景珍曰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 [魯宇 鄭忠弼(1725~1789), 『魯宇集』(卷之四 雜著, 遊俗離山錄);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2) 도수희(2009, 89)는 ‘신도안(新都內)과 ‘팻거리’(豆磨)라는 지명을 분석하면서 동일한 지명 영역에 분포하는 여러 이 표기의 복수 지명들 중 시간적으로 앞서 명명되었던 본명

- (本名), 즉 원(原) 지명과 선(先) 지명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명해석에 있어서 동일 지명에 대한 여러 별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본명(최초 지명)부터 찾아내야 한다. 본명이 ‘新都內안’ - ‘밖거리’인 것을 판별하여야 별칭 이표기형인 ‘神都內’, ‘新都案’, ‘新都안’(否), ‘廣沼’, ‘豆磨’, ‘豆溪’의 문제를 풀 수 있고, 본명이 ‘선바위(立岩)’인 것을 판별하여야 ‘柱岩’·‘舟岩’·‘船岩’·‘梨岩’의 문제를 풀 수 있고, 본명이 ‘물살골(水靑里)’인 것을 알아야 별칭인 ‘무쇠골(水鐵里)’, ‘無愁洞’, ‘무수골(蘆谷)’, ‘무술 權씨’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 3) 본 글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고)문헌과 (고)지도 등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地理志)』(1145)=『三國』, 『高麗史(地理志)』(1451~54)=『高麗』, 『世宗實錄(地理志)』(1454)=『世宗』, 『新增東國輿地勝覽』(1530)=『新增』, 『東國輿地志』(1656~73)=『東國』, 『鄭鑑錄』(17세기 이후)=『鄭鑑』, 《關東地圖(古4709-35)》(1712~67)=《關圖》《備邊司印方眼地圖[영남지도(奎12154)·충청좌도각읍지도(古4709-105)]》(1745~60)=《備邊》, 《海東地圖》(1750~51)=《海東》, 『擇里志』(1751)=『擇里』, 《朝鮮地圖(奎16030)》(1750~68)=《朝圖》, 『輿地圖書』(1757~65)=『輿地』, 《地乘》(1776~86)=《地乘》, 《東域圖(古4709-27)》(1767~1800 이후)=《東域》, 『戶口總數』(1789)=『戶口』, 《輿地圖(古4709-37)》(1795~1822)=《輿圖》, 《青邱圖》(1834)=《青邱》, 《東輿圖》(1850~63)=《東輿》, 《大東輿地圖》(1861)=《大圖》, 『大東地志』(1861~66)=『大志』, 《1872년지방지도》(1872), 『필사본 朝鮮地誌資料』(1911년경)=『朝鮮』,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舊韓』,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新舊』,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1:50,000)》(1919)=《近圖》, 『韓國地名總覽3(忠北篇)』(1970)=『韓國』, 『韓國地名總覽5(慶北篇 II)』(1978)=『韓國』, 『報恩郡誌』(1994)=『報恩』, 『尙州市史』(2010)=『尙州』, 《다음 지도》(2017)=《Daum》,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검색서비스》(2017)=《국토》, 《농지공간포털 지도서비스》(2017)=《농지》, 『牛腹洞歌(『茶山詩文集』)』(丁若鏞, 1762~1836)=『牛腹a』, 『牛腹洞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1788~1856)=『牛腹b』, 『牛腹洞眞假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1788~1856)=『牛腹c』, 『牛腹洞圖記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1788~1856)=『牛腹d』, 『牛腹洞讚歌(유교넷, 안동의 가사)』(金子相, 1984~85)=『牛腹e』
- 4) 16세기 이래 연구 지역의 지명들이 다수 기록된 시문(詩文) 자료들을 최석기(201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시문 자료들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병천(瓶泉) 관련 자료 - 金昌協(1651-1708),

- 『華陽諸勝記』; 李顯益(1678-1717), 『入瓶泉 宋道能 權敬仲 定性 來會』; 閔遇洙(1694-1756), 『瓶泉精舍 與晦可 同次牧隱韻』; 宋明欽(1705-1768), 『瓶泉夜雨 書寄士行』, 『瓶泉偶吟』, 『瓶泉漫吟』, 『瓶泉 敬次李先生壁上留題韻二』, 『瓶泉 次蟾村 閔叔-遇洙-韻 三』, 『瓶泉途中』, 『入瓶泉和黃士溥-仁燾-韻』, 『瓶泉拈韻 與黃士溥 共賦』, 『瓶泉次諸生韻 一 二 ○甲申-』, 『瓶泉和諸生韻』, 『瓶泉 次諸生韻』; 宋文欽(1710-1752), 『瓶泉記略』; 李肯翊(1736-1806), 『山川形勝-瓶川』; 鄭象觀(1776-1820), 『蓬壺第一史』(曦陽山, 俗離山 유람기); 宋秉璋(1836-1905), 『遊華陽諸名勝記』; 金子相(1984-1985 상주군 합창읍장 역임), 『瓶泉精舍重修記』(1998); 金彰顯(?-?), 『瓶泉亭舍重建記』(1987), ② 용유동천 및 용유동(龍遊洞天 및 龍遊洞) 관련 자료 - 李敏求(1589-1670), 『下龍游洞』; 金昌翁(1653-1722), 『龍遊洞』; 李萬敷(1664-1732), 『龍遊洞記』; 李灑(1681-1763), 『龍遊洞』; 鄭宗魯(1738-1816), 『龍遊洞石形之詭怪 南宗伯以爲非龍遊所致 乃造化自然 作辨破詩累十句以示我 其言固不爲無見 而余意天地間物理無所不有 亦難以一槩論故反其意 又作此詩奉寄』; 南漢朝(1744-1809), 『龍遊洞』; 南漢朝(1744-1809), 『龍遊洞盤石』, ③ 壯岩洞 관련 자료 - 金得研(?-?), 『壯岩洞記』(1821 ?), ④ 용화동(龍華洞) 관련 자료 - 李圭景(1788-1856), 『龍華洞辨證說』, ⑤ 쌍룡계곡 및 용추(雙龍溪谷 및 龍秋) 관련 자료 - 金昌協(1651-1708), 『華陽諸勝記』; 南漢朝(1744-1809), 『雙龍』; 閔禹植(1885-1973), 『雙龍九曲詩』, 『書雙龍九曲詩後』, 『四友亭記』; 鄭琢(1526-1605), 『題雙龍寺同游錄』; ⑥ 우복동천 및 우복동(牛腹洞天 및 牛腹洞) 관련 자료 - 丁若鏞(1762-1836), 『牛腹洞歌』; 李圭景(1788-1856), 『牛腹洞辨證說』, 『牛腹洞眞假辨證說』, 『牛腹洞圖記辨證說』; 無名氏, 『牛腹洞記』(『華東勝覽』).
- 5) 다만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18세기 고지도인 《關東地圖(古4709-35)》(1712~67)의 慶尙道 부분에는 ‘洛雉山’(낙치산)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속리산(俗離山)을 취형(取形)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誤記)로 보인다.
- 6) ‘속리-’를 전부 지명소로 하는 지명들은 남한 내에 총 4지역에 걸쳐 총 8곳이 분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명 분포를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CD)』(1998)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속리뿌리(俗離) 1곳(충북 음성), ‘속리고개(俗離峴) 1(경북 성주군), ‘속리골 1(경북 성주군), ‘속리동 1(전북 순창군), ‘속리등재 1(전북 순창군), ‘속릿들 2(경북 문경군), ‘속릿비리 1(경북 문경군); ① ‘속리-뿌리’(俗離) (마을) (충북 음성군 금왕면 백아리) (현 금왕읍); 상촌 동북쪽 속리산 난맥에 있는 마을 [‘소속리산’ - 현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꽃동네성당 동편 산 (Daum)], ② ‘속리-고개’(俗離峴) (고

- 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동) (현 칠선리~용성리): 서우너동에서 용성동 와룡으로 넘어가는 고개, ‘속리-골’ (골)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동) (현 용성리): 와룡에 있는 골짜기, ③ ‘속리-동’(俗離洞) (마을) (전북 순창군 구림면 방화리): 방화재 서북쪽에 있는 마을, 속리사란 절이 있었다 함 [‘속리마을회관’ - 현 전북 순창군 구림면 속리길 23], ‘속리등-재’(고개) (전북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이울에서 방화리 속리등으로 가는 고개, ④ ‘속릿-들’ (들) (경북 문경군 농암면 내서리) (현 문경시): 서당마 서쪽에 있는 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에서 내려오는 냇가 있음, ‘속릿-들’ (마을) (경북 문경군 농암면 내서리) (현 문경시): 속릿들 옆에 있는 마을 [‘한지장전수교육관’ - 현 경북 문경시 농암면 속리길 38-1], ‘속릿-비리’ (벼랑) (경북 문경군 농암면 내서리) (현 문경시): 속릿들 서남쪽에 있는 벼랑.
- 7) 현재까지 전하는 ‘속리산’의 지명 유래들은 대체로 ‘속리산’을 원조 지명으로 전제하여 그 (훈자) 표기 한자를 뜻풀이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784년(신라 선덕여왕 5년)에 승려 진표(眞表)가 이곳에 이르자, 밭 갈던 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 이를 본 농부들이 짐승도 저러한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며 속세를 버리고 진표를 따라 입산수도하였는데, 여기에서 ‘속리(俗離)’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라거나, 혹은 “세속을 떠난 속리산: 세속을 떠난 한줄기 물이 비단 같이 흐르는 속리산” 등과 같은 표현들에서 훈자 표기에 대한 뜻풀이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성에서 본 한국의 산지지형 속리산;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5: 충청도, <http://terms.naver.com>). 한편 “속리를 단순히 속세를 떠난다는 뜻으로 풀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 속세를 떠난다는 표현은 ‘이속(離俗)’이 더 옳은 표현이다. 속리를 우리 음으로 유추하면 ‘수리(首)’가 되는데, 여기서 수리는 꼭대기를 의미하는 옛말이다. 아마도 속리라는 지명은 우리 음을 한자식으로 음역하다 보니 생겨난 이름인 것 같다”라는 주장과 같이 ‘수리’를 음차 표기한 ‘속리’에 주목한 지명 유래도 존재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위성에서 본 한국의 산지지형 속리산, <http://terms.naver.com>). ‘속리산’의 본명, 즉 원지명을 “*수리산”으로 보는 이 견해는 금강산과 설악산의 통일신라시대 명칭인 ‘靄岳(설악)’과 ‘雪岳(설악)’의 원지명을 “*서리악”으로 추정한다면 그 상관성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순배, 2014, 41-42). 이와 관련하여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8) 이와 관련하여 이능화(1927; 2008, 408-409)는 『朝鮮民俗考』에서 “법주사 승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대자재천 왕제는 매우 음란했다고 한다. 제석날 여러 시종이 모여 제사를 하는데 나무로 남근을 만들어 거기에 붉은 칠을 하여 그것을 들고 춤을 추며 신을 위안했다.”고 기록하였다. 한

편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법주사의 대중(大衆)은 선달그믐날 나무방망이를 다듬어 남자 성기를 만들고 거기에 붉은 칠을 하여 한바탕 놀이를 벌임으로써 이 신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에 재난이 생긴다고 믿었기에 반드시 그 신사(神祀)를 행하였으나, 일제강점기 초기에 와서 음사(淫祠)라 하여 폐지되고 말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대자재천왕사, <http://terms.naver.com>; 김영진, 1999, 25-74).

- 9) 속리산신제 ‘송이놀이’는 지난 1999년 속리산 단풍축제(현 속리축전) 기간에 재연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산외면 풍물보존회(회장 김인각)에 의해 시연되고 있다(보은신문, 1999.08.28.; 충청리뷰, 2002.04.26.). 이후 송이놀이는 2001년 충북민속경연대회에서 대상을, 2002년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충청매일, 2002.05.17.; 보은신문, 2002.10.26.).
- 10) 전국(남한)에 분포하는 ‘송이-’ 관련 지명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송이-갯’ 1곳(경남 함안군), ‘송이고개’ 2[전북 고창군(송이치), 전북 남원군], ‘송이곡(松栢谷 1, 松耳谷 2, 松伊谷 1)’ 4[경북 영일군, 경북 고령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송이실)], ‘송이골’ 3[경북 영일군(송이곡),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송이곡)(송이버섯이 많음), 하송리(송이버섯이 많음)], ‘송이담’ 1[경남 산청군], ‘송이동(松茸洞 1)’ 2[강원 원성군(송이버섯이 많음), 전북 순창군], ‘송이동산’(생이동산 1(제주 제주시), ‘송이등’ 1(경북 울진군), ‘송이등재(송이미기, 송리현) 1(경북 울진군), ‘송이모기’ 1(경북 울진군), ‘송이미기(송이등재) 1(경북 울진군), ‘송이바위’ 2[경기 포천군(꽃송이처럼 생김), 경기 여주군(송이버섯이 많음)], ‘송이밭등’ 1[경남 하동군(송이버섯이 많음)], ‘송이방우(새방우) 1(경북 영동군), ‘송이밭골’ 2[강원 삼척군(송이버섯이 많음), 경북 영덕군(송이버섯이 많음)], ‘송이봉(松茸峯 1)’ 2[경북 문경군(송이버섯이 많음), 충북 옥천군(송이처럼 생김)], ‘송이산(松茸山 1)’ 3(경기 광주군, 경북 문경군, 경북 경주시), ‘송이실’ 2[충북 제천군(송이버섯이 많음), 강원 평창군(송이버섯이 많음)], ‘송이재’ 3(강원 정선군, 강원 삼척군, 경기 포천군), ‘송이재보’ 1(강원 원성군), ‘송이갯봉(松茸-)’ 1[강원 춘천군(송이버섯이 많음)], ‘송이치(松耳峙) 1(전북 고창군), ‘송잇골’ 6(경북 영덕군(송이곡)(송이버섯이 많음), 경북 고령군(송이버섯이 많음), 경북 청송군 진보면 고현리, 시량리, 경북 영일군, 경북 청송군), ‘송잇골등’ 1(경북 청송군), ‘송잇골목’ 1(경북 청송군), ‘송잇골재’ 1(경북 청송군), ‘송잇날’ 1[경북 문경군(송이버섯이 많음)], ‘송이담’(松義山) (산) (경남 산청군 오부면 일몰리): ‘송이담’(매봉 서북쪽에 있는 산), ‘송애밭골’ (골) (전남 광양군 옥룡면 추산리): 안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송이버섯이 많이 났다 함.

- 11) 이와 유사한 사례로 조선시대 순수한 고유 지명이 유교적 지식인들에 의해 그들이 선호하는 한자로 음차 표기된 이데올로기적 기호, 특히 유교적 기호로 개명된 사례들이 있다(김순배, 2010): ‘논골’魯恩洞(충남 홍성군), ‘토계’兎溪·土溪退溪(이황의 호)(경북 안동시), ‘수문골’崇文洞(충남 서천군), ‘무냇골’文學洞(충남 서천군) 등.
- 12) 『한국 땅이름 큰사전』(한글학회, 1998)을 통해 전부 지명소 ‘만수’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만수’의 경우 ‘萬壽’가 다른 표기보다 지명 연중에 의해 선호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수동’ 총 24곳 (萬壽洞 7곳, 萬水洞·萬樹洞 각 1, 萬水洞 7, 萬樹洞 3, 晚岫洞 1, 晚守洞 1); ‘만수리’ 총 6곳 (萬壽里 4, 萬水里 2, 萬樹里 2); ‘만수산’ 총 6곳 (萬壽山 5, 萬水山 1).
- 13) 최석기(2012, 111)는 ‘쌍룡’ 지명의 유래에 대해, 상주시 화북면 용유동과 병천, 용추에서 내려오는 시내와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다락골에서 내려오는 내서천이 우연(于淵) 앞에서 합류하는데, 두 시내가 마치 두 마리 용이 굽어굽이서린 것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쌍룡구곡(雙龍九曲)이란 지명은 『주역』 건괘의 ‘잠룡(潛龍)과 ‘견룡(見龍)에서 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인 쌍룡구곡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제1곡~제6곡은 進德次第(학문의 과정), 제7곡~제9곡은 出處行藏(처세의 과정); 제1곡(入道門) 도에 들어가는 문, 제2곡(志道石) 도에 뜻을 두다, 제3곡(于淵) 『중용』 ‘어약우연(魚躍于淵)에서 연유, 천리가 유행하는 것을 보는 못, 제4곡(戾天臺) 『중용』 ‘연비려천(鳶飛戾天)에서 연유, 천리가 유행하는 것을 보는 대, 제5곡(放化洞) ‘맹자’의 ‘대이화지(大而化之)’의 성(聖)을 의미함, 성(聖)을 펴는 곳, 제6곡(安道石) 도에 편안히 하는 삶, 제7곡(樂耕臺) 안빈낙도, 제8곡(廣明巖) 천하에 명덕을 널리 밝힘, 제9곡(紅流洞) 세상을 피해 사는 도화원.
- 14) 『우복동 찬가』의 첫머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가/ 부괘판判할제/ 이명승/ 지있도다/ 음陰양陽이/ 조화할 때/ 이정령/ 태있도다/ 소소태태白白의/ 정精기氣쌍고/ 삼三파派의/ 장長원源모아/ 우牛복腹명名구區/ 되었도다/ 사방에/ 사四중甕농고/ 팔八항項으로/ 팔八괘卦놓아/ 유有別別건乾곤坤/ 지있도다/ 이명승/ 어드덴고/ 경상도라/ 상尙주州땅에/ 속俗리離산山이/ 여기로다.....”
- 15) 우복동의 원 지명, 즉 고유 지명을 재구하는 과정에서 16세기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기록한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腹(뱃 복) 『訓蒙字會』(1527); 腹(뱃 복)·伏(긷 복)·臥(누을 와) 『新增類合』(1567); 伏(긷 복) 『石峰千字文』(1583). 이 중 ‘伏’의 훈과 음을 현대어로 옮기면 ‘허리가 많이 굽다’와 같이 사물이 한쪽으로 휜 것을

- 뜻하는 ‘굽을~구블’이 된다. 현재 ‘伏’의 훈과 음은 일반적으로 ‘엎어질·숨을·굴복할 복’이다.
- 16) 소눈골(전북 이리시 신동, 와우혈산 남쪽에 있는 들); 소눈이(충남 당진군 당진을 사기소리, 부락의 형상이 소가 누운 것 같다 함); 소눈재(충남 예산군 응봉면 긴지화리,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소눈계[경북 영일군 의창군 우목리, 우목(牛目)뿔].
- 17) 소누골(경남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소가 누워있는 형국임); 소누분방우(臥牛峯)(울산시 동구 전하동, 소가 누워있는 것처럼 생겼음); 소누실(손골)(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함).
- 18) 소눈골(소눈골)(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지형이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소눈골(솔눈골)(경북 안동군 와룡면 지내리,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한편 ‘소눈~소누~소눗’의 차자 표기 가능성이 있는 전부 지명소 ‘우와(牛臥)’는 전국적으로 약 19곳이 우와, 우와곡, 우와논, 우와등, 우와리, 우와산, 우와섬, 우와실, 우와지, 우와등 등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4곳에서 해당 지명의 유래 설명에 ‘와우형’이나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부지명소 ‘와우(臥牛)~와웃’이 나타나는 곳은 ‘와우, 와우동, 와우등, 와우리, 와우산, 와우평, 와우현, 와우혈, 와웃골, 와웃등’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약 144곳이 분포하고 있다.
- 19) ① ‘우복’ (들)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새터 서쪽에 있는 들; ② ‘牛腹’ (마을) (전남 여천군 울촌면 신흥리) → 우산; ③ ‘愚伏’ (마을) (경남 함천군 야로면 매촌리): 매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 ‘우복보’ (보): 우복잇들에 물을 대는 보, ‘우복잇들’ (들): 우복 앞쪽에 있는 들; ④ ‘牛伏里’ (우복, 우로동) (마을) (경북 영일군 연일면 우복리): 지형이 소가 엎드린 형국, ‘牛伏池’ (못): 우복리에 있는 못; ⑤ ‘우복실’ (牛伏谷) (골)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황소가 엎드린 형국이라 함; ⑥ ‘우복실’ (우박골, 우박골, 우동) (마을)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동); ⑦ ‘우복골’ (우각동) (마을) (강원 횡성군 안흥면 산전리), ‘우복골저수지’ (저수지) 우복골 앞에 있는 저수지; ⑧ ‘우복골’ (골) (경북 경산군 남산면 우검동):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함; ⑩ ‘우복광산’ (광산) (경북 선산군 옥성면 옥관동): 중마 남쪽에 있는 광산, ‘우복동’ (마을) (경북 선산군 산동면 송산동): → 오복동; ⑪ ‘우복동’ (골) (경북 문경군 동로면 석항리): 삿갓봉 앞 남쪽에 있는 골짜기; ⑫ ‘우복동’ (마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 평호동): 평호동 남쪽에 있는 마을; ⑬ ‘牛伏洞’ (마을) (경북 울릉군 울릉면 사동리): → 옥천동, ‘우복동안 골짜기’ (牛伏洞內谷): 우복동 안골짜기; ⑭ ‘牛腹洞’ (마을) (경북 상주군 화북면 상오리): → 선섬이; ⑮ ‘牛腹膺’ (등) (충북 단양군 단양면 고평리): 안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의 배처럼 생겼다 함; ⑯ ‘愚伏里’ (마을) (경

남 하동군 양보면):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서동, 상동동, 하성동 등을 병합하여 우복리라 해서 양보면에 편입됨; ㉗ ‘愚伏祠堂’ (당) (경북 상주군 외서면 우산리): 상우산 동쪽에 있는 우복 정경세의 사당; ㉘ ‘우복산’ (산) (경남 김해군 김해읍 삼계리): 삼거리 서쪽에 있는 산, 모양이 소가 엎드려 있는 것 같음, ‘우복-통’ (약) (김해군 김해읍 동상리): 만장대 서쪽에 아래에 있는 약물 터; ㉙ ‘牛伏山’ (산) (경북 문경군 농암면 화산리): 귀밑 북쪽에 있는 산, 모양이 소가 엎드린 것 같이 되었다 함; ㉚ ‘牛伏山’ (산) (경북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오동 북쪽에 있는 산, 소가 엎드린 형국이라 함.

20)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가파른 비탈만이/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 온 나에게/속리산은 순하다 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산다는 일은/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세속을 벗어나도/세속의 습관은 남아있는 나에게/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산을 오르고 있지만/내가 넘는 것은 정작 산이 아니라/산 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그 하루 하루가/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속리산은/단숨에 오를 수 있는 높이를/길게 길게 늘여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

참고문헌

- 김순배, 2010,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유교·불교·풍수 지명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2(1), 33-59.
- 김순배, 2012, 지명과 권력: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 경인문화사, 서울.
- 김순배, 2013, “한국 지명의 표준화 역사와 경향,” 지명학, 19, 5-70.
- 김순배, 2014, “설악산권 자연지명의 의미와 지명 영역의 변화: ‘설악’과 ‘한계’를 중심으로,” 지명학, 21, 37-78.
- 김순배, 2015, “백두대간 고개지명의 분포와 변천: 설악산과 오대산 일대를 중심으로,” 지명학, 23, 5-74.
- 김영진, 1999, “보은 속리산 산신제,” 보은 속리산의 민속 문화, 25-74, 민속원, 서울.
- 김채식, 2009, “이규경의 牛腹洞 변증에 대한 고찰,” 漢文學報, 20, 251-287.
- 나희덕, 1997, 그곳이 멀지 않다, 민음사, 서울.
-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84, 千字文, 단대출판부, 서울.
-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5, 訓蒙字會, 단대출판부, 서울.
- 단국대동양학연구소, 2002, 新增類合, 단대출판부, 서울.
- 도수희, 2009, “‘신도안’(新都內)과 ‘팻거리’(豆磨)에 대하여,” 지명학, 15, 89-107.
- 박일봉 역, 1988, 大學·中庸, 육문사, 서울.
- 보은군지편찬위원회, 1994, 報恩郡誌, 보은군, 보은.
- 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尙州市史, 상주시, 상주.
- 이능화(서영대 역주), 2008, 조선무속고: 역사로 본 한국 무속, 창비, 서울.
- 이민수 역주, 1993, 新譯 鄭鑑錄, 홍신문화사, 서울.
- 이중환(노도양 역), 1988, 擇里志(I·II), 명지대학교출판부, 서울.
- 지현영, 2001, 한국 지명의 제문제, 경인문화사, 서울.
- 최석기, 2012, “우복동천, 용유동천, 병천, 쌍룡계곡(쌍룡구곡·쌍룡사),” 백두대간 속리산권 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별책 자료집), 경상대산학협력단, 진주.
- 한글학회, 1970, 한국 지명 총람 3(충북편), 한글학회, 서울.
- 한글학회, 1978, 한국 지명 총람 5(경북편 II), 한글학회, 서울.
- 한글학회, 1998,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CD), 한글학회, 서울.
- 東國輿地志, 柳馨遠,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83).
- 戶口總數, 서울대학교출판부 영인본(1996).
- 大東地志, 金正浩,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76).
- 필사본 朝鮮地誌資料(忠淸北道篇 4冊 古27031-8-11, 慶尙北道篇 8冊 古27031-24-3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1911년경)
-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조선총독부(1912), 태학사 영인본(1985).
-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越智唯七(1917), 태학사 영인본(1985).
-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조선총독부(1919), 경인문화사 영인본(1988).
- 현대 1:5만지형도(속리, 관기), 국토지리정보원(2001~2004).
- Daum 지도, <http://map.daum.net>
- EBS, 한국기행(상주 2부: 속리산속 우복동 이야기), <http://home.ebs.co.kr/travel>

김순배

경인일보, “경북 상주 속리산 문장대”(2011.12.09.), <http://www.kyeongin.com>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검색서비스(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http://sd.ngii.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關東地圖·備邊司印方眼地圖·海東地圖·朝鮮地圖·地乘·東域圖·輿地圖·青邱圖·東輿圖·大東輿地圖·1872년지방지도, <http://kyujanggak.snu.ac.kr>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대자재천, 구병리, 임곡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속리산, 대자재천왕사, 보은군-민속), 위성에서 본 한국의 산지지형(속리산), <http://terms.naver.com>
농지공간포털 지도서비스, <http://njj.mafra.go.kr/jsp/map/PortalMap.jsp>
뉴스스, “관광공사 추천 1월의 가볼만한 곳(해신당 성민속 공원)”(2008.12.31.), <http://news.naver.com>
보은신문, “속리산신제 송이놀이 재연”(1999.08.28.), “송이놀이 문광부 장관상 수상”(2002.10.26.), <http://www.boeuni.com>
월간 산, 571호, “한국의 산신 17 보은 속리산(불교식 습합 명칭 ‘대자재천왕’이 산신 위패)”(2017.05.26.),

<http://san.chosun.com>
유교넷, 안동의 가사(牛腹洞讚歌), <http://www.ugyo.net>
충청리뷰, “송이놀이”(2002.04.26.), <http://m.cbnews.co.kr>
충청매일, “법주사 송이놀이 시연 ‘눈길’”(2002.05.17.)
한국고전종합DB, 五洲衍文長箋散稿(牛腹洞辨證說·牛腹洞真假辨證說·牛腹洞圖記辨證說)·茶山詩文集(牛腹洞歌), <http://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三國史記·高麗史·朝鮮王朝實錄·輿地圖書, <http://db.history>

교신: 김순배, 284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 흥덕고등학교(이메일: gogeo@daum.net)
Correspondence: Sun-Bae Kim, 9, Jeungan-ro,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28415, South Korea (e-mail: gogeo@daum.net)

최초투고일 2017. 9. 13
수정일 2017. 10. 16
최종접수일 2017. 10. 17